Entertainment p/18

탈세 송혜교 활동 영향 없나

metro

메트로 2014년 8월 20일 수요일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박인비 랭킹1위 탈환 도전

'잘바뀐' 세월호법 타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거다긴 협상 끝에 세월호특별법 재협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사고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키로 했다. 피해자 배·보상 문제는 다음달부터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39건과 법제사법위원회 43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이날 여야 합의는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다. 게다가 이번 재협의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합의안에 대해 추인을 유보했다. /조현정기자 사진, 연합뉴스

해외 직구 의약품 오·남용 심각

저렴하고 쉽게 구입 할 수 있어 갈수록 급증…복약 지도 無

김모씨(33)는 최근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외 직구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를 샀다. 하지만 가슴 두근거림과 두통이 심해져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구입한 발기부전 치료제가 불법 의약품이었고 의사나 약사의 복약 지도 없이 무분별하게 약물을 남용했기 때문이다.

해외에 직접 나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해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쇼핑이 최근 위와 같은 사례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해외 직구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의약품이 유입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복약 지도가 불가능해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가 크다. 또 유통 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되거나 소비자가 부작용을 입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가 된다. 더욱이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시장의 확대를 염려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외 직구로 유통되는 불법 의약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반입금지 제품 들어오고
> 유통 과정서 변질되거나
> 마약류 유통경로 역할도
> 부작용·피해 소비자에게

◆전문 의약품까지 무분별 유통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세관을 통해 수입된 인터넷 쇼핑 물품은 4억 9000만 달러 규모다.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성장한 수치로 해외 직구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일부 품목, 즉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은 물론 해외 전문의약품들도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큰 제한 없이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들은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와도 연계돼 소비자가 접근하기 쉽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취급이 제한되는 불법 마약류의 구입·유통도 해외 직구로 가능해졌다.

◆부작용·피해는 소비자에게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고 부작용 피해를 막기 위해 제조·수입·유통·사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한다. 하지만 해외 직구 의약품은 국가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식약처의 책자 '안전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여대생 A씨는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터넷을 통해 미국과 유럽에서 유통되는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했다. A양은 낙태에는 성공했지만 하혈과 복통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식약처는 낙태약 복용 시 처방은 약사법과 형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국내에 있어서는 안 될 낙태약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통된 상황으로 해외 직구 부작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의약품은 의사나 약사의 복약 지도가 필요하며 특히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해외 직구는 이런 복약 지도가 이에 생략돼 있다. 이런 이유로 스테로이드제제나 탈모·발기부전 치료제가 남용되고 있으며 소화제나 제산제 역시 싸다는 이유로 해외 직구 구매가 늘고 있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 구매율이 높다는 식욕억제제 등의 다이어트 의약품과 향우울제, 수면제는 말할 것도 없다.

약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약품은 제대로 된 복약 지도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 직구 의약품은 본래 용법과 복용 시 주의사항 등을 잃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 경로에서 의약품이 변질되거나 유통기한 또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3면에 계속>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CCTV 등장 남성 한 명"

지검장 변명 허위 가능성 더 높아져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남성 1명만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피의자의 정확한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장에는 한 남성만 찍혔다"며 "남성이 김 지검장인지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지검장이 애초 주장한 것과는 달리 당시 현장에는 피의자로 지목할 만한 다른 남성은 없었으며 화면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지검장으로 특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지검장은 당시 산책을 하던 중 오르막길이라 힘들고 땀이 나서 문제의 식당 앞 테이블에 앉았으며 다른 남성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김 지검장이 음란 기구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3일 0시 45분께 김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제주동부서 오라지구대에서 소지품 검사를 할 당시 바지에서 15㎝ 크기의 베이비로션이 나왔고 음란행위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음란행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은 찍혔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ikm@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는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김종덕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천명 동원 한달간 뭐했나

"유병언 사인 몰라…사망시점만 6월2일 이전"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건에 대해 한달에나 집중 수사를 벌이고도 정확한 사망 원인이나 이동 경로 등을 알아내지 못한 채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백승호 전남지방경찰청장은 19일 "유병언의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단서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2차에 걸친 부검, 법의학 법곤충학 생태 환경 분석, 주요 장소에 대한 정밀 감식 등 과학 수사와 함께 3800여 명을 동원해 주변 탐문검사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타살 흔적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외에 더 진척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특히 유씨 사망의 원인이나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증선 파악에 대한 결론도 못내렸다.

단지 국과수, 고려대학교 등의 법곤충학 기법을 통해 사망 시점을 시신 발견 시점보다 10일 전인 6월 2일 이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변사 현장 등의 유류품에 대한 조사에서도 기존에 밝혀졌던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국과수 발표 당시에 검출되지 않았던 보해골드 소주병, 막걸리병, 매실 씨앗과 청미래 덩굴 열매, 육포, 머스터드 소스통 등에서도 유씨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결국 유병언 사망 사건은 명확한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사실상 미궁에 빠지게 됐다.

◆송치재 은신처 부부 보석 석방

한편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제2의 김엄마 김모(58·여)씨 등 나머지 도피 조력자 4명의 보석 청구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김승호기자 ssklin@metroseoul.co.kr

국가안전보장 벙커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이틀째인 19일 오전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데이터'로 행복해지셨나요?

기자 수첩

서승희 <경제산업부 기자>

마케팅 교수는 말한다. "이러분이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회사가 끊임없이 소유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출근하는 지하철 안, 승객 한 사람이 몸이 불편했나 보다. 갑자기 옆자리 몸에 기댄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승객은 없었다. 다들 스마트폰 업무가 바빴기 때문이다. 순간 외국인의 말이 오버랩됐다. 한국 방문이 처음인 그는 지하철 속 이색 풍경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을 게임하기 등 소모적인 활동으로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어차피 허비할 시간에 놓친 드라마를 보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생산적인 시간 소비 방식이지 않느냐는 반문에 그는 한 마디를 던졌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통신사가 그토록 자랑하던 '통신강국'의 어두운 면을 시작한거다.

물론 스마트폰은 유용하다. 이체 등 금융거래를 쉽게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낯선 장소도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하지만 문제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통신사의 행태다.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출시도 부족했는지 SK텔레콤은 게임요금제인 '클라우드게임팩'을, KT는 'LTE 영웅서가팩'을, LG유플러스는 1만 편이 넘는 영화를 무제한으로 관람할 수 있는 '유플릭스'를 선보이며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 언뜻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듯 보인다. 하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2G 서비스를 아예 종료한 KT나 간헐적으로도 들리지 않는 2G폰 출시 소식에 과연 소비자에게 데이터 소비 외의 선택안이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통신사는 여타 사업자와 다르다.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물론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등 통신사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부족하다. 내실 있는 '통신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바람직한 스마트폰 문화 정착에도 애쓰는 통신사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16년만에 행정규제 대수술

규제비용총량제·일몰제 등 도입키로

정부가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16년 만에 규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내용의 비용총량제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한다. 또 신설되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규제 일몰제도 병행한다.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우선 고려 대상을 '진입규제와 사업활동제한 규제'로 명시했다.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설치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한 국조실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수가 10만명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개정안은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된다.

/김민준기자 mkim@

軍사이버사 정치 관여…전 사령관 등 입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한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이 최종 형사입건됐다.

그러나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면죄부 수사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1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발표한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최종 수사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은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래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상에 총 78만7200여 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처벌 대상이 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은 7100여 건(0.9%)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사본부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선영기자 sy@

뉴스&뉴스

당정청, 소방공무원 인력·재정 지원 확충

● 당·정·청은 19일 청와대에서 협의회를 열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 소방 공무원 인력을 현재보다 늘리고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세와 담뱃세, 레저세를 비롯한 지방세 확충 방안은 그동안 조율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

민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내달 발족

●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단체, 공기업 등 38개 기관 및 단체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를 구성, 다음달 3일 정식 발족한다.

네트워크의 주요 사업은 반부패 전문교육인력 양성과 우수 기관간의 교류이며 공동 연구를 통해 정부에 정책도 제안할 예정이다.

4대강 자전거길 안전 문제 400여건 발견

● 이명박 정부에서 25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4대강 자전거길에서 모두 465건의 안전 문제가 발견됐다.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한강 자전거도로 253건, 낙동강 종주자전거길 193건, 금강 종주자전거길 79건 등이 나타났다. 한강의 경우 설계기준 미흡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軍, 남경필 장남 폭행 축소"

"강제추행 등 수사기록과 달리 발표"…남 상병 구속영장 기각

군인권센터가 19일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강제추행·폭행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헌병대 속보를 보면 6사단 소속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일병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3개월간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 이는 모두 헌병대 속보에 기재된 남 상병의 진술 내용이다.

헌병대 속보는 헌병대 수사관들이 피의자 진술 등을 인트라넷에 올려 공유하는 수사기록 일부다.

하지만 군 당국은 남 상병이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또 다른 후임병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발표한 대로 '지퍼 부위를 쳤다'는 행위만으로는 사안이 가벼워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 지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작용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병대 속보에는 남 상병의 범죄가 위중함에도 불구속 수사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의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육군은 이날 남 상병에 대해 후임 폭행 및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군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최연순기자 mjan@metroseoul.co.kr

경례 받는 남경필 군에 있는 장남이 가혹행위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을지훈련에서 훈련 종료 후 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2일은 에너지의 날!

밤 8시30분 불끄세요

22일 에너지시민연대가 주관하는 제11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서울시가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35분간 불필요한 전등을 끄는 캠페인을 벌인다.

에너지시민연대는 2003년 8월 22일 에너지 소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날을 계기로 매년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 2004년부터 자율적인 소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에너지의 날 청계광장에서는 불 꺼진 서울 하늘에서 '내 별'을 찾아보는 천체관측 프로그램 등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열려진다. 시는 청계광장에 천체망원경 10대를 설치해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팽목항에 전해진 교황 메시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참사 실종자 10명의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묵주와 묵주 선물이 천주교 수원교구 총대리 이성효 주교와 안산대리구장 김건태 신부를 통해 19일 진도 팽목항에서 전달됐다. /연합뉴스

서울교육청, 전교조 미복귀자 면직 유보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유보하기로 해 교육부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9일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유보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 예정된 중앙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직권면직 조치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징계위 의견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뒤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이날까지 미복귀한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yd...

2년7개월새 '싱크홀' 전국 53곳 발생

안성 11곳 가장 많아

최근 석촌지하차도 동공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싱크홀(지반침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2년7개월 사이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지반침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지반침하의 현황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 4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됐다.

원인으로는 하수 누수에 따른 지반 유실이 4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수관로 꺼짐 2곳, 기타 10곳 등으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안성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군산 7곳, 정선 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싱크홀의 크기는 0.01~225㎡(평균 2.63㎡), 높이는 0.05~4m(평균 1m)로 파악됐다.

/김민준기자

집중호우에 축대 벽 '와르르' 19일 오후 경남 마산시 용산동 한 아파트 뒤편 외곽순환도로와 맞닿은 높이 60m 축대 벽이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려 왕복 4차선 도로에 완전히 덮쳤다. /연합뉴스

해외 직구 의약품 부작용·피해 대책 시급

<1면에 이어서>

또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는 엄연히 불법인 만큼 해외 직구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의약품 해외 직구 허용 불가

해외 직구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식약처는 의약품 해외 직접구매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대안이나 정책 부재로 관련 소지가 진실한 상황이다.

일단 해외 직구는 관련 관례에 따라 수입대행형 거래로 분류돼 국내에서 약사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식약처도 이직까지 소비자 당부만 강조하는 정도에 머물 뿐이다.

물론 식약처가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연계되는 의약품 판매에 적극 대처하고 인터넷 의약품 판매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인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더욱이 관세청이 해외 직구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불필요한 절차와 각종 규제를 개선한 점 역시 식약처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다.

/황재용기자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 뇌물수수 인정

STX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전 청장 측은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다만 선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청장은 변모(61·구속기소) 전 STX그룹 CFO(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부터 2011년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윤다혜기자

빗속 태권도 시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4 서울 세계태권도지도자포럼'에서 시범단들이 폭우 속의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예의 바르지만 성실성 낮다

초·중·고교생 인성검사… '자기조절' 최하 수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은 예의는 바르지만 성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개발한 표준화 인성검사를 이용해 학생 4만여 명을 대상으로 10가지 인성 수준을 측정한 결과 '예의'(8.25)의 항목이 가장 높았고, '성실'(6.61)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EDI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효도와 공경 등과 관련된 '예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다. 이어 ▲정의(7.82) ▲책임(7.71) ▲자기존중(7.67) ▲시민성(7.63) ▲배려·소통(7.50) ▲정직·용기(7.40) ▲지혜(7.18) ▲자기조절(7.10) 순으로 나타났다.

KEDI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과 관련된 역량인 '자기조절'이 성실 다음으로 가장 낮게 나온 것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인성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고등학생, 중학생 순이었다.

자기존중, 성실은 초→중→고로 갈수록 점차 낮아졌고, 나머지 8개 덕목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에서 낮아졌다가 고등학생에서 약간 회복하거나 비슷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학생 인성 수준을 측정·진단해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yd∗∗@metroseoul.co.kr

"세월호 승무원 2명, 구조 참여"

해경 "창문 깬 것 목격" 공소장 변경 여부 주목

세월호 승무원 일부가 목포해경 123정에 의해 구조된 뒤 다른 승객 구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은 19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7차 공판에서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에 탑승한 의경 김모(22)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씨는 123정이 세월호에 두 번째로 맞대어 객실 유리창을 깨고 5~6명을 구조한 것과 관련, "누가 유리창을 깼느냐"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직원(해경) 두 명이랑 승객 두 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승객으로 추정되는 두 명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창문을 깬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해경이 촬영한 당시 구조 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승객이라고 지칭한 2명은 승무원이었으며 승객 구조에 참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이 이들의 행위가 실질적인 구조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공소장을 변경할지, 재판부에 그 판단을 맡길지 주목된다. /윤다혜기자 yd∗∗@

짐볼 운동으로 뱃살 쏙~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정재YMCA에서 열린 '배 쏘~옥 키 쑤~욱 어린이 건강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짐볼(gym ball)로 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음란물 적발 급증

최근 수년간 아동음란물 단속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06년 6건에 불과했던 아동음란물 단속 건수는 2011년 98건까지 완만히 증가했다가 2012년 182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416건으로 급증했다. 단속된 사람도 2008년 7명에서 지난해 3130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는 아동음란물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경찰이 아동음란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수년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윤다혜기자

전 KB금융 부사장 기소

이사회 자료 유출 혐의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이사회 안건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KB금융지주 전 전략담당 부사장 박동창(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27일 자신이 만든 'ING생명 인수무산 KB금융 반대 사외이사 4인 연임이슈'라는 제목의 문건을 서울 종로구 공평동의 한 커피숍에서 미국의 주주총회 안건 분석기관인 ISS의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ING생명보험 인수를 반대했던 사외이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줘 주주총회에서 이들의 연임을 저지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최근 패소하자 항소했다. /윤다혜기자 yd∗∗@

'닮은꼴' 흑인사망 파장…

美 경찰 과잉대응 논란 두 사건 연계 시위 확산 조짐

최근 미국 미주리주에서 발생한 10대 흑인 청년 사망 사건이 뉴욕의 40대 흑인 남성 질식사 사건과 연계돼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흑인 인권운동가인 알 샤프턴 목사의 대변인을 인용, 23일 뉴욕에서 엄수 예정인 에릭 가너 추모 행진에 마이클 브라운의 가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너는 지난달 17일 뉴욕 경찰이 체포 도중 목을 졸라 사망했다. 브라운은 지난 9일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숨졌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당수 흑인 청년과 인권운동가는 지나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며 미주리주에서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가너의 사망을 규탄하던 일부 뉴욕 시위대는 미주리주까지 원정 시위를 갔다. 한 뉴욕 시민 단체 대표는 "두 사건이 우리의 신경을 건드렸다"며 "뉴욕 시민이 힘을 보태기 위해 미주리로 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제2의 로드니 킹 사태'로 비화할 것을 우려했다. 로드니 킹 사태는 지난 199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났다. 과속 운전으로 도주하는 흑인을 붙잡아 폭행한 백인 경찰이 무죄를 선고받자 흑인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50여 명이 숨지고 1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18일(현지시간) 경찰이 진압자으로 뛰어 가려는 남성의 몸을 짓누르며 막고 있다. /AP 연합뉴스

한편 브라운 사건을 바라보는 흑인과 백인의 시각이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흑인 응답자의 80%는 이번 총격 사건과 시위 사태가 미국 내 인종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고 답했다. 반면 이같이 답한 백인 응답자의 비율은 37%에 그쳤다.

또 흑인 응답자의 3분의 2는 경찰의 대응이 도를 넘었다고 봤다. 그러나 백인 응답자는 3분의 1만 경찰의 대응이 가혹했다고 답했다.

/조선미기자 seonm@metroseoul.co.kr

인간 탑쌓기 … 힌두교 축제 절정 18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에서 힌두교 축제 '잔마쉬타미'를 맞아 주민들이 인간 탑쌓기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에볼라 환자 탈출 지역 봉쇄 검토

라이베리아 '해결책'… 국경 넘는 사람 발포 명령도

라이베리아 당국이 에볼라 격리센터가 있는 수도 몬로비아 인근 웨스트포인트 지역을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이곳을 탈출한 환자 30여 명을 찾지 못해서다.

18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당국은 환자들이 이미 웨스트포인트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에도 이 지역을 봉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루이스 브라운 라이베리아 공보장관은 "아직 환자들을 찾지 못했다. 격리 센터를 약탈한 괴한이 이들의 체액과 혈액이 묻은 담요 등을 가져갔다"며 에볼라 확산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격리시키는 것이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라이베리아 군대는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이웃 시에라리온과의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사람에게 발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세계보건기구(WHO)는 교통 및 관광 분야 국제기구와 에볼라 발병 상황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관광객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에볼라 상황감시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HO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관광기구, 국제공항협의회, 국제항공운송협회, 세계여행관광협회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선미기자

140명 예술가 한자리에

metro Ecuador

'열린 작업실' 프로젝트

Los artistas se muestran

최근 140여 명의 예술가가 에콰도르 수도 키토의 산 마르코스 거리에 나란히 작업실을 열었다. 화가를 비롯해 보석 세공사, 목수, 판화가, 무용수 등 폭넓은 범위의 예술인이 모여 작품을 선보였다.

이틀간 펼쳐진 진기한 광경은 바로 '키토 열린 작업실(TAQ) 프로젝트'의 일부다. 키토 시민이 예술 작품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아와 작업실을 찾은 많은 시민은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하고 궁금증이 생기면 작가의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마리아 페레스는 "예술가가 사적인 공간을 먼저 개방하고 자신의 작품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예술가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소통도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가브리엘라 마르티네스 기자 · 정리=조선미기자

꼬마 팬 사진촬영 요청 거절

metro France

Stromae explique pourquoi il a refusé une photo à une fillette

유명 뮤지션 구설수

프랑스의 한 유명 뮤지션이 소녀 팬의 사진 촬영 요구를 거부해 불편한 논란에 휩싸였다.

프랑스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벨기에 출신 가수 스트로마에가 꼬마 팬의 사진 촬영을 거부해 SNS에서 비난을 받았다. 지난 5월 초 한 레스토랑에서 10세 소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게 화근이었다.

당시 소녀의 아버지가 정중하게 사진을 찍어달라 요구했지만 스트로마에는 거절했다. 이후 아버지는 불편한 심경을 SNS에 올렸고 이야기는 삽시간에 인터넷에 퍼졌다. SNS를 통해 소녀의 아버지는 "그래도 스트로마에는 조금은 다를줄 알았다. 그런데 연예인은 모두 똑같나. 수백만의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환호를 받지만 그는 내 딸을 실망시키고 울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트로마에는 최근 한 프랑스 TV쇼에 출연해 사건을 해명했다. 그는 "소녀의 아버지가 느꼈을 심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나도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식사를 할 권리가 있었다.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휴가를 보내고 싶었을 뿐이다"고 밝혔다.

/로랑 세브롱 기자 · 정리=정주희 인턴기자

보건소 환자 중 남자는 30%

metro Brazil

건강에 신경 안 써

브라질 남성들의 보건소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쿠리치바시 인구의 절반(48%)을 차지하면서도 남성의 보건소 이용률은 36.7%로 여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이한 점은 10세까지는 남녀의 이용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세에서 60세의 성인을 놓고 본다면 전체 진료건수 중 32%만이 남성이고 여성이 과반을 넘는 68%를 차지하고 있다.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기에는 수치가 30%로 더 낮아진다.

시립 보건국 소속의 세자르 지통은 "대부분의 남성이 [illegible] 소홀하고 현 보건 체계가 여성을 위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남성들은 자신의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하며 주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시민들의 보건소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국은 진료시간을 늘리고 진료를 위한 등록절차를 대폭 줄여 편의성을 도모했다.

/[illegible]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market index <9일>

코스피	코스닥
2071.14 (+18.01)	582.86 (+1.56)

금리	환율
2.57 (+0.01)	1017.50 (변동없음)

뉴스&뉴스

신학기 미리 준비 하세요 롯데마트가 신학기를 앞두고 노트, 필기류, 필수 준비물과 스탠드 등 총 100여 품목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하는 '가을 신학기 대전'을 오는 9월 3일까지 진행한다. /연합뉴스

잡코리아 취업 콘서트 개최

●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크레듀OPIc와 함께 26일과 28일 모두 2시에 각각 서울 세종대학교 대양홀과 부산 부경대학교 대학극장에서 '잡코리아 취업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직자와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입장이다.

이번 취업콘서트에서는 대기업 공채 경향과 구직 준비 요령 등을 다룬다. 삼성SDS 인사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는 삼성SDS 채용설명회도 열린다. 이밖에 제일모직은 면접 특강을 진행하며 부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대우조선해양 인사담당자가 취업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조성준기자

스마트폰뱅킹 4300만명 육박

● 스마트폰뱅킹의 등록 고객 수가 도입 4년6개월 만에 43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분기 국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4296만명으로, 3개월 전보다 6.5%(264만명) 증가했다. 이는 국내 17개 시중은행, HSBC, 우체국 고객의 스마트폰뱅킹 등록자를 합한 것으로,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엔 중복 계산됐다. /정은지기자 rin@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로구 적선동 같은 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회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6
독자센터	(02)721-9801

2005년 1월 3일 등록 서울특별시 가00

IT인재 되는 길 기업특강에 있네~

KTDS·SK플래닛 등 알짜 프로그램 풍성

KT 계열사 KTDS의 입사 반년차 안휘진·채정희(사진 왼쪽)씨는 최근 3억원의 경비 절감 효과가 있는 모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웹서비스 점검 시스템을 개발했다. KTDS는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KT그룹반'을 편성해 최신IT 기술을 가르치고 수강생 일부를 정규직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채용하고 있다. 개발에 참여한 안휘진 사원은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가 선배들의 자문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오픈소스를 통해 많이 배운 만큼, 배운 것을 많이 나눠주는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IT 기업들이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면서 IT 인재의 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당초 사회공헌 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인재확보 및 투자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도 한다.

사례 속 KTDS 신입사원 안휘진·채정희씨는 지난 3월 입사한 소프트웨어 특성화 고교 졸업생으로 재학시절 KT그룹반에서 공부했다. 이후 이들은 입사 반년만에 3억원의 가치가 있는 점검 시스템을 만들었다. 웹서비스의 정상적 동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해당 서비스 주소를 입력해 확인하거나, 별도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점검해야 한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경우 1개 주소에 약 30만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KTDS 관계자는 "안휘진·채정희 사원이 개발한 시스템을 자사 1000여 개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상용 소프트웨어 수준의 점검효과를 얻으면서 약 3억원의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SK플래닛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고교생 앱 개발 경진대회인 '스마트 앱 챌린지 2014'를 열고 있다. 10월에 최종 20개 수상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대회엔 126개교 338개팀의 1242명이 참가해 이 중 45개의 앱이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했다. 대회 참가자 중 38명은 SK플래닛을 비롯해 위메이드, 파티게임즈 등 IT 관련 기업에 취업했으며 6개 팀은 창업에 성공했다. 아울러 SK플래닛의 모바일 IT 전문 교육기관 'T아카데미'는 최근 누적 수료생 7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삼성그룹은 진로 상담 프로그램인 '삼성 멘토링' 대상을 올해부터 대학생에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올해 4년째를 맞는 삼성멘토링은 삼성 임직원이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 직업 정보와 경험담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년간 1만2800여명의 삼성 임직원 멘토가 6만6000여명의 대학생 멘티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지원을 해왔다. 삼성그룹은 2011년부터 대학생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토크콘서트 '삼성 열정락서'(오른쪽)도 열고 있다. 삼성 임직원과 유명 인사가 청춘 멘토로 변신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그동안 22만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했다. /윤휘기자 uniue@metroseoul.co.kr

팬택 회생절차 개시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가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15일 서울 상암동 팬택본사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포인트 5년 유효

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 OK

다음달부터 신용카드에 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적립한 포인트는 5년간 유효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포인트 표준약관'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카드사별로 달랐던 모든 신용카드의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 9월부터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된다.

또한 카드 포인트가 소멸될 시에는 고객에게 미리 통지하는 등 포인트 소멸에 따른 고지도 충실히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카드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도 없어진다.

예컨대 신용카드에 1포인트만 적립돼 있어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간 카드사들은 일정 포인트 이상 적립된 경우에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카드사 임의대로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를 바꾸지 못하게 된다.

한편 1포인트를 1원으로 사용하는 '1포인트=1원' 방식은 카드사 자율에 맡겨진다.

아울러 한 카드사에서 쌓은 포인트를 다른 카드사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공동사용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아란기자 alive0203@

정부, 중기에 21조 푼다

추석물가 특별 점검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8개 생필품의 물가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20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도 공급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서민 중소기업 지원, 사고예방·재난대응, 취약·소외계층 배려, 교통 수송 원활 대책, 먹거리 안전 강화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추석(9월8일)이 38년 만에 가장 일러 수확이 본격화하기 전인 데다가 태풍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8개 품목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 이달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매일 가격을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을 전후해 중소기업에 20조9000억원(대출 18조9000억원, 보증 2조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작년 추석 때(16조6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하도급 대금과 체불 임금 등은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해 근로장려금이나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추석 전에 환급해주고 법인세와 소득세는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기한은 당초 오는 30일에서 할인판매 한도(1000억원) 소진이 예상되는 다음 달 초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교통·가스·전기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고 대풍 등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종합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주영기자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공식선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조기통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본격적인 합병 절차를 밟기로 했다.

19일 하나·외환은행은 김종준 하나은행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 두 은행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을 위한 양 은행장 선언식을 열고 조기통합을 공식화했다.

두 행장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그동안 두 은행은 직원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합에 대해 소통했고, 노조와도 성실한 협의를 위해 대화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병행해 양행 노조와도 지속적으로 성실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통합을 결의하고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통합계약서를 승인하는 등 공식적인 합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두 은행의 합병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으면 절차는 완료된다.

한편 이날 통합선언은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합병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두 은행의 조기통합이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한다는 기존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양 은행장 공동선언에 대해 "일방적 사전 합병의 추진은 2.17 노사정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그간 금융지주는 노동조합과 어떤 협의도 없는 상태로 7, 3월 합병추진을 선언했고, 이후 '노조와 협의'를 운운하면서도 합병작업을 강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이어 "20일 본점 대규모 집회에 이어 금융노조와 연대투쟁 등 더욱 강력한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하나금융은 조기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이유로 통합 지연에 따른 조직혼란과 영업환경의 불안정성을 꼽았다.

하나금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은행 노조와 통합 논의 거부로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노조의 대응만을 기다리다 통합 시기를 놓치면 영업환경 불안정성으로 조직 내 혼란만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백아란기자 e .. ...

기준 금리 인하 '악재vs호재'

예·적금 금리 조정 불가피 … 고객 이탈 등 우려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2.25%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은행의 수익성에 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예대마진 감소와 함께 이제 막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순이자마진(NIM)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관측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NIM이란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 수익에서 조달 비용을 뺀 후 운용 자산 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수익성의 핵심 지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2분기 NIM은 1.82%로 지난 1분기(1.80%) 보다 상승했다. 그러나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NIM의 하락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줄어든 시중은행의 순이자이익을 계산한 결과, 연간 27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3조9000억원)의 7% 정도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저금리로 예금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자금이 빠져나가면 조달 비용이 상승해 NIM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정책 큰 방향 고려해야"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저금리 장기화로 이미 은행권의 NIM은 '바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락세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은행주가 기준금리 인하 발표로 인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경기 부양이라는 정책의 큰 방향을 고려할 때 재차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기준금리 25bp(0.25%포인트) 인하로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3bp 하락하며, 이는 연간 세전 이익 추정치 7조1270억원의 4%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 인하의 부정적인 요인보다 내수 경기 부양이라는 큰 방향이 가져다줄 긍정적인 요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진원 KTB투자증권 연구원도 "금리인하에 따른 NIM 악영향은 5bp 이내로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대출 증대 등이 금리인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metroseoul.co.kr

상품권도 모바일 시대 19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증시 상승세 지속되나

활동계좌 13% 증가

정부가 배당 활성화 등 내수경기 진작 정책을 내놓으면서 증시의 활동계좌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체 활동계좌는 170만1332개로 전달보다 12.7% 늘었다.

월별 활동계좌가 170만개를 넘은 것은 지난해 10월(173만개) 이후 9개월 만이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이 166만2227개로 전달보다 12.8% 늘었고 기관은 2만5548개(10.1%), 외국인은 1만6657개(6.8%) 각각 증가했다.

그 외 기타가 4505개(12.3%)였다.

월별 활동계좌 수는 2011년 8월 1247만9458주(?)을 고점으로 지속적인 감소해 올해 1월에는 150만3092주로 쪼그라들었다.

그 수준에서 증감을 거듭하던 활동계좌 수는 제2기 경제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을 전후로 지난 6월 이후 증가 흐름을 탔다.

분기별 전체 활동계좌는 올해 2분기 232만3776개로 전 분기보다 4.14% 증가했다.

개인투자자의 활동계좌 추이를 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거래하는 계좌가 전체의 55~60% 수준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기관은 유가증권시장만 거래하는 계좌가 전체의 60~74%였고 두 시장 모두 거래하는 계좌는 24~37%, 코스닥시장만 거래하는 계좌는 1~2%에 불과했다.

외국인도 유가증권시장만 거래하는 계좌가 60~67%로 가장 많았고 두 시장에서 거래하는 계좌는 30%, 코스닥시장만 참여하는 계좌는 4.6~7.7% 수준이었다.

/김현정기자 ...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격차' 역대 최저

강남구도 5억 미만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데다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서울 가구당 평균 매매가 대비 전세가 격차가 2006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8월 2주차 시세 기준, 서울 평균 매매가는 5억2381만원, 평균 전세가는 3억1838만원으로 그 격차는 2억543만원이다. 이는 2006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이다.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가 가장 컸던 2008년 3억5354만원보다 1억7811만원이 감소했다.

특히 강남구는 2006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평균 매매가 대비 전세가 격차가 5억원 미만으로 줄었다. 2008년 평균 매매가 대비 전세가 격차가 8억3022만원에 달했으나 2014년 현재 4억7810만원으로 무려 3억5212만원이 줄었다.

강남구의 경우 고가 대형 아파트가 집중돼 매매가 하락이 컸던 반면 전세선호 현상으로 대부분 단지에서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뒤를 이어 송파구가 2006년 6억1085만원에서 2014년 2억9842만원으로 3억1243만원이 감소했다.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등 입주 25년 이상 된 대단지 아파트의 중대형 면적에서 매매가 하락이 컸다. 반면 잠실동 리센츠, 신천동 파크리오 등 새 아파트를 비롯한 대부분 단지에서 전세가가 상승하며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를 크게 줄였다.

이밖에 용산구가 2008년 6억8661만원에서 2014년 3억9969만원으로 2억8692만원 감소했다. 서초구가 7억3914만원에서 4억5588만원으로 2억8326만원, 양천구가 4억3826만원에서 2억1624만원으로 2억2202만원이 줄었다.

이러한 매매가 대비 전세가 격차 감소는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이다. DTI·LTV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대부분 매수자들이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미리부터 움직이려는 세입자들로 전세가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탁기자 ...

'올 뉴 쏘렌토' 지구 24바퀴 테스트 거쳤다

기아 글로벌품질센터 검증 거친 첫 SUV

기아자동차의 야심작 '올 뉴 쏘렌토'가 출격 준비를 끝냈다.

기아자동차는 19일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자동차 담당기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미디어 설명회를 갖고, 올 뉴 쏘렌토가 하반기 국내 SUV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자신했다.

기아차에 따르면 올 뉴 쏘렌토는 안전성, 주행성능, 차체 크기와 실내 공간 등에서 한 급 위(Upper Class) SUV로 새롭게 태어났다. 또한 올 뉴 쏘렌토는 글로벌품질센터의 본격 검증을 거친 첫 SUV다. 특히 양산 차량 평가를 위해서 지구 24바퀴에 해당하는 전 세계 119만km의 도로를 달렸다.

이날 행사에서 인지왕 기아차 품질담당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뉴 쏘렌토는 기아차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완성시킨 차량"이라며 "특히 글로벌품질센터의 품질 평가를 통해 높은 양산 품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올 뉴 쏘렌토는 초고장력 강판의 적용 비율을 기존 24%에서 53%로 확대했으며 구조용 접착제의 적용 범위도 늘려 차체 강성을 10% 이상 높였다. 이와 함께 핫 스탬핑 공법을 통해 안전성도 향상시켰다.

올 뉴 쏘렌토는 보행자의 머리 상해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액티브 후드를 적용했고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으로 제작된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를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 이 밖에도 전방추돌 경보 시스템,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등 다양한 안전사양을 적용했다.

신기술도 적용했다. 우선 후륜 쇼크 업소버를 직립화 해 험로 주행 시에도 차량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불필요한 진동 등을 줄여 승차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플로어 언더커버를 기존 쏘렌토보다 2.5배 확대 적용해 공기저항을 줄이고 실내 정숙성도 높였다.

올 뉴 쏘렌토는 전장 4780㎜, 전폭 1890㎜, 전고 1685㎜로, 전고는 15㎜ 낮아졌지만 전장이 기존 쏘렌토보다 95㎜ 늘어나 안정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축거는 기존보다 80㎜가 늘어난 2780㎜를 확보했으며, 더욱 넓은 실내공간을 제공한다.

◆핫 스탬핑 공법 안정성↑

올 뉴 쏘렌토는 설계·시험 단계 평가, 선행 양산 차량 단계별 품질 평가 등 총 3단계 평가를 통해 품질을 높였다. 특히 글로벌품질센터에서 선행 양산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 작업을 거쳤다. 평가는 개별 부품부터 조립 상태, 종합 성능 검증에 걸쳐 진행됐으며 생산 공정도 점검했다.

글로벌품질센터에서는 국내·북미·유럽·중동·중국 등 전 세계를 돌며 내구 성능을 평가했다. 북미에서는 계절별 성능평가를 눈길부터 사막까지, 아우토반 등 다양한 도로 특성을 갖춘 유럽에서는 실도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 밖에도 남미의 고지대 지역, 중동의 사막 지역, 중국의 고원과 험로 지역 등을 돌며 내구성을 검증했다. 또한 내구 성능 평가를 마친 올 뉴 쏘렌토에 대해서는 분해 평가를 해 내구 관련 문제점을 점검하는 등 양산 품질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올 뉴 쏘렌토는 존재감 넘치는 당당한 디자인과 한 수 위의 상품성으로 전 세계 SUV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ferrari6@metroseoul.co.kr

삼성 IFA 2014서 신규 스마트TV 콘텐츠 공개 삼성전자는 다음 달 5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에서 새로운 스마트TV 콘텐츠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콘텐츠는 게임 사용자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끄는 '니드 포 스피드, 모스트 원티드', '리얼 풋볼', '골프스타' 등이다. /삼성전자 제공

가로수길 홍대 옷가게 바로 쇼핑

네이버 '스타일윈도우' 오픈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오프라인 상점에 있는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태원, 가로수길, 홍대 옷가게와 같은 입소문이 난 매장도 포함된다.

네이버는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의 새로운 정보를 모바일 웹에서 제공하는 '스타일윈도우' 서비스의 정식버전을 19일 오픈했다.

스타일윈도우는 백화점, 아울렛에 입점해있는 전문 브랜드들의 제품뿐 아니라 트렌드샵에서 제공하는 상품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거리, 시간 등의 이유로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사용자들은 쉽게 상점에서 제공하는 신상품, 할인정보 등을 온라인에서 그대로 전하면서 보다 간편한 쇼핑을 할 수 있다.

또 판로 확대나 모바일 상권 대응 등에 어려움을 느꼈던 소형 점포상인들도 모바일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트렌드샵 '핀트블럭'의 주라미 대표는 "점포가 이태원과 같은 특정 위치에 있다 보니 거리가 멀어 직접 오기 힘들었던 손님들도 모바일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베타버전을 출시한 스타일윈도우는 현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미아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 그리고 100여 개가 넘는 트렌드샵의 쇼핑 정보를 우선 입점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박상훈기자

버스정류장 안내 목소리의 비밀

토종기업 디오텍 음성 기술

버스 정류장에서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목소리에 토종 기업의 첨단 기술이 담겨있다.

음성 기술을 비롯한 차세대 HCI (Human-Computer Interaction) 기술 전문 기업 디오텍은 19일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에 음성 합성 기술을 제공해 전국 버스 정류장의 음성 안내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오텍의 음성 합성 엔진인 'DioTTS(Text To Speech)'는 문자 형태의 정보를 소리로 바꾸어 들려주는 기술로

전자사전의 예문을 읽어주거나 ARS 안내, 그리고 내비게이션 교통 안내 등 일상 속 다양한 곳에서 사용된다.

버스정보시스템은 2001년 부천시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30여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디오텍은 2007년 버스정보시스템과의 첫 계약을 시작으로 이번 8월 광명시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버스정보시스템의 90% 가량에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인천의 경우 방문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버스정보시스템 안내 언어를 확대해 행사 진행을 원활히 지원할 예정이다.

디오텍은 글로벌 1위 모바일 소프트웨어 '폴라리스 오피스'로 유명한 인프라웨어의 계열사다.

/박상훈기자 [illegible]

건설업체 "'아파트' 아닌 '신뢰'를 팝니다"

견본주택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분양마케팅이 최근 구매 의사가 있는 수요자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계약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변하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오랜 불황으로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는 집을 팔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수요자들이 보지도 않은 '조망권'을 프리미엄으로 포장하기에 앞서 사전에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입주 의향이 있는 수요자를 홍보사절단으로 모집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사례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의 대표적인 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뢰 마케팅을 가장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건설사는 대림산업이다.

대림산업은 서울 영등포구 '아크로타워 스퀘어'의 분양을 앞두고 'SKY홍보관'을 인근 '메리어트파크센터'에 마련했다.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오픈뷰와 우수한 개방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한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아크로타워 스퀘어' SKY홍보관에서 내려다본 도심 전경. 대림산업은 이처럼 실제 조망권과 비슷한 느낌을 연출하고자 사업지 인근에 홍보관을 마련했다.

분양 전 수요자에게 미리 보여주고, 소통하고 믿음 심어주는 게 분양률 높이는 데 더 효과적

홍보관은 지난달 성공리에 분양을 마친 'e편한세상 광주역'에서도 사업 부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체험관을 운영해 크게 효용을 얻은 데서 착안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e편한세상 광주역 분양 당시 막연히 '사업지 앞에 역이 생길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보다 공사 현장을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다 싶어 체험관을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이번에도 29~35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뷰를 수요자가 비슷한 위치에서 미리 느껴볼 수 있도록 홍보관을 마련해 하루 40~50명 정도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인근 JW메리어트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호텔 스위트룸에서 보이는 전경과 이 아파트에서 보이는 풍경이 비슷하다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또 고가아파트를 구입하는 고객들을 설득하기 위해 수십년간 시중은행 PB로 활동한 경력자를 영입해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

삼성물산이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공급할 '래미안 장전'은 사전 마케팅 활동에 참여할 앰버서더를 모집했다. 앰버서더는 래미안 장전에 청약 및 입주 의사가 있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아파트를 사전에 널리 퍼뜨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맡게 된다. 보통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단지를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마케팅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주택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지만 수요자들은 여전히 집을 사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약에 관심 없는 불특정 다수를 설득하기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실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를 심어주는 게 분양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10대 재벌, 강남 3구 30만평 보유

삼성·롯데·신세계 등 토지·건물 평가액 31조

국내 10대 재벌이 보유한 강남 노른자위 토지와 건물 평가액이 3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벌닷컴이 국내 10개 대기업그룹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토지와 건물을 합친 평가액은 6월말 기준 30조8630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10개 그룹이 보유한 토지 규모는 30만7900평(101만6110㎡)으로 평가액이 17조3000억원이다. 또 전체 건물 평가액은 13조5630억원을 기록했다.

그룹별로 삼성그룹의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강남 3구 소재 부동산 평가액이 12조6080억원으로 1위였다. 삼성그룹이 보유한 서초동 등 강남 3구 노른자위 토지는 총 44건의 14만7700평(48만7500㎡)으로, 8조1160억원 수준이다. 서초사옥과 새로 매입한 역삼동 옛 KTB빌딩 등의 20여개 건물 평가액은 4조4920억원이었다.

두번째 강남 3구 부동산 부자는 롯데그룹이다. 보유 부동산 평가액이 9조510억원에 달했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의 롯데쇼핑 등 계열사가 보유한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제2월드 포함) 부지와 롯데칠성음료, 롯데건설 등이 보유한 토지 평가액이 5조1660억원을 기록했다. 신축 중인 제2월드를 제외한 롯데월드 등의 건물 가치는 3조8850억원으로 평가된다.

신세계그룹의 강남 3구 부동산 총액은 3조5760억원에 이른다. 강남 3구 토지는 10여건의 1조7350억원, 건물 가액은 1조841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세계와 신세계인터내셔날 등 계열사가 서초구 반포동에 소재한 센트럴시티와 청담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대거 매입하며 강남 3구 부동산 부자그룹 3위에 등극했다.

현대차그룹의 강남3구 소재 토지와 건물은 양재동 사옥과 압구정동(기아차), 잠원동(현대하이스코) 등 3건이다. 토지(3260억원)와 건물(1조3120억원)을 합친 부동산 평가액이 1조6380억원으로 나타났다.

GS그룹은 테헤란로 본사 사옥과 GS건설, GS리테일 등 계열사가 보유한 토지(6590억원)와 건물(6340억원) 등 모두 1조2930억원어치의 강남3구 소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보유한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등의 토지와 건물이 8820억원어치로 조사됐다.

LG그룹의 우면동과 양재동 소재 R&D센터 등 강남 3구 소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가액은 7390억원을 기록했다. SK그룹은 역삼동 SK텔레콤 빌딩 등 4220억원어치를 갖고 있다.

두산그룹이 소유한 논현동 두산빌딩과 대치동 빌딩 등의 토지와 건물 평가액은 3660억원이었다. 동부그룹은 동부화재가 소유한 테헤란로 동부강남금융센터 장부가액이 2940억원을 기록했다. /김여균기자

올레tv플레이 업그레이드 KT의 IPTV서비스 올레tv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올레tv플레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로운 올레tv플레이를 이용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시청 중인 프로그램의 다양한 부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KT제공

"최경환 경제팀, 경제혁신·내수활성화 집중해야"

경제전문가 51%, "日 장기불황 답습 우려"

최경환(사진) 경제팀이 주력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제혁신'과 '내수활성화'가 꼽혔다. 이를 위해 우선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민간 국책 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인식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통화·신용정책 ▲경제 전망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최경환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 중 주안점을 둬야 할 분야로 응답자들은 경제혁신(48.7%)과 내수활성화(43.2%)를 제시했다. 또 경제혁신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부 중점과제로 각각 '규제개혁(50.0%)'과 '확장적 재정·금융정책(5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선 최근 우리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제전문가의 51.4%가 "저성장의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45.9%는 "회복국면에 있지만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저하되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과 가계부채 심화(35.1%)",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심리 위축(35.1%)"을 지목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신성장동력 부재(51.4%)'와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29.7%)'을 지적했다.

또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 /김학균기자 kaur@

평직원도 스톡옵션 대박 꿈 '활짝'

이국영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⑮ 아프리카 TV

최소 500주 보유…애사심 쑥쑥 '더 크게 누리자' 기업문화 눈길 3년 근속땐 2주 리프레시 휴가

겜방(게임방송) '먹방'(먹는 방송) 공방(공부 방송)으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아프리카TV 직원들의 얼굴에는 최근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임원급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스톡옵션 대박'의 꿈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아프리카TV는 그동안 임원·파트장급 이상으로 한정됐던 스톡옵션 부여 범위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기존 혜택을 받은 90여명 이외에 180여명의 직원들도 최소 500주의 스톡옵션을 보유하게 됐다. 15일 현재 주가가 3만2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1000만원이 넘는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 초에 비해 3배 넘게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추세여서 '대박'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시간 방송 5000개 독보적 1위

국내에서는 유한양행 등 일부 기업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전 직원 스톡옵션을 아프리카TV가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크게 누리자'는 기업 문화 덕분이다.

아프리카TV는 실시간 평균 동시 방송수 5000여개, 일 평균 방송수 10만 여개, 월별 최고 동시시청자 수 38만 여명 등 국내 인터넷 방송업계 독보적인 1위다. 올 상반기 매출 282억원, 영업이익 3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48% 상승한 수치다. 올 연말까지는 매출 650억원, 영업이익 70억원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다. 이같은 성과를 직원들과 함께 나눠 더 크게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전직원 스톡옵션 부여로 표현한 셈이다.

아프리카TV의 직원 친화적인 기업 문화는

아프리카TV 직원들이 유명 BJ 캐리커처가 그려진 휴의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기자

휴가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3년 근속마다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해 2주간의 리프레시 휴가를 준다. 해외여행은 200만원, 국내여행 150만원이라는 특별 보너스도 함께 제공된다.

통근 버스도 자랑거리다. 판교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용 때문에 운행을 중지했지만 아프리카TV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는 통근버스는 여전히 서울 주요거점 지역을 운행중이다.

이밖에 사내 카페, 아침식사 제공, 25만원 상당의 분기별 복지포인트 제공도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셋째 출산 축하금은 300만원

'따뜻한 조직'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아프리카TV는 성과급 제도도 독특하다. 개인·팀 성과에 따라 반기별 성과급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도 따로 격려금을 제공한다. 모든 직원이 성과를 함께 누리는 기업문화는 자녀 출산 때 첫째 1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직원부모의 생일까지 챙기는 가족 응원문화로까지 발전

아프리카TV 체육대회

하고 있다.

아프리카TV는 이같은 기업문화를 함께 할 인재를 올 하반기에만 20여명 이상 수시 채용할 계획이다.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권원진 경영기획본부장은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동영상이 아프리카 TV를 통해 방영될 날이 조만간 다가올 것"이라며 "자신의 끼와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많은 구직자들은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국영기자 kyl.ee@metroseoul.co.kr

아프리카TV 마니아 환영

"긴장한 탓에 면접에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원자에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 보라고 했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학이동'을 외치더군요. 기본적인 실력과 열정을 갖춘 인재가 이 같은 자신감을 나타낸다면 충분히 아프리카TV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권원진(사진) 경영기획본부장은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난 톡톡 튀는 인재들이 아프리카TV인재상과 어울린다고 설명했다.

▶기업 문화가 매우 독특하다

▶▶인터넷 방송이라는 특성상의 자유로운 소통과 개성을 존중한다. 한 가지 예로 근무시간에 아프리카TV를 마음껏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하는 직원들은 업무시간에 사내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방송을 하며 끼를 발산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다.

▶채용절차는

▶▶수시채용이 일반적이다. 부서 신설 등 필요에 따라 공개채용을 할 때도 있다. 절차는 인사서류 평가, 1·2차 면접 순으로 이뤄진다. 현재 중화권·북미권 담당자 채용을 진행 중이다.

▶합격 노하우가 있다면

▶▶서비스의 이해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아프리카TV에서 즐겨보는 콘텐츠, 유명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이름 등은 반드시 물어본다. 배려심 등 인성을 파악하기 위해 출연자에게는 비출연자의 권리, 비출자에게는 출연자의 권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준비된 대답이 아니라 평상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국영기자

면접질문 구조화·자격요건 강화

기업 23% "채용 변화"

구직자들은 올 하반기 채용 트렌드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4곳 중 1곳에서 서류, 필기, 면접 등 채용 절차 변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올 하반기 신입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1%가 채용 절차에 변화를 줄 예정이라고 답했다.

면접전형의 변화를 예고한 기업이 70.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서류전형(29.2%), 인·적성전형(20.8%), 필기전형(15.3%) 등의 순이었다.

면접전형의 변화로는 질문 구조화(50%,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실무자 중심의 면접 실시(46.3%), 면접횟수 늘림(27.8%), 실무평가 도입(27.8%) 등을 거론한 기업도 많았다.

채용박람회에서 면접을 기다리는 구직자들 /연합뉴스

서류전형에서는 지원자격조건 추가·강화(47.4%, 복수응답)와 열린 채용 등 지원자격조건 완화(36.8%)가 1, 2위를 차지했다. 자유기재 등 자기소개서 규정 완화(31.6%), 이력서 항목 추가 세분화(21.1%), 이력서 항목 간소화(21.1%) 등을 계획한 기업도 많았다.

채용 절차에 변화를 주는 이유로는 인재상에 맞는 인재 선별을 위해서(58.3%,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국영기자

은행권 공채 문 활짝 열린다

국민·우리·기업은행 등 예정

은행권이 하반기 채용시즌을 맞아 채용 등용문을 활짝 열었다.

그간 저금리·저수익 기조로 신규 인력 채용에 소극적이던 은행들이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확대 모집하고 나선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 하반기 약 250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50여명 더 늘어난 규모로 이번 채용부터는 지원서에서 토익 자격증란을 없앴다.

다만 서적 3권을 선택해 느낀점을 적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에 반영한다.

원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달 말부터 원서를 접수받는 국민은행은 하반기 대졸 신입행원으로 약 28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간 따로 모집하던 '해외 우수인재 채용'을 폐지하는 대신 신입사원의 30%를 지방대학 출신 등 지역 인재로 채울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대학 졸업자 채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이를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과 밀착한 '관계형 금융'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상반기 채용이 없었던 기업은행도 9월 초 채용 공고를 통해 약 200명의 행원을 신규로 뽑을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 100명을 뽑은 신한은행은 추석 이후부터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용 규모는 200~25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방은행들도 채용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올 상반기 은행권 실적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나아진데다 정부에서도 금융권 채용을 독려한데 따른 것이다.

오는 22일까지 부산은행은 5·6급 신입행원을 모집한다. 채용 규모는 약 80여명이다.

경남은행은 창구텔러와 여신 회한을 담당하는 신입 행원을 각각 50명 안팎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박미진기자

여행 준비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알아서 척척 맞춤여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숙박업소는 물론 음식점과 교통편까지 확인 가능하다 /코레일공항철도 제공

공항철도, '알아서 척척 맞춤여행' 서비스
18일부터 영종·용유도 지역 컨설팅 나서
홈페이지에 숙박·음식·즐길거리 정보 가득

"여행 준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코레일공항철도가 숙박·음식·교통 등 여행과 관련된 모든 상담을 해주는 여행 컨설팅 '알아서 척척 맞춤여행 서비스'를 본격 오픈했다. 을왕리 등 영종·용유도 지역으로 여행자와 가족·단체가 대상이다.

이 서비스는 코레일공항철도가 수년간 서비스센터 운영을 통해 축적한 영종·용유도 관광지 정보가 그 바탕이 됐다.

특히 서비스는 대학생이나 일반인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공항철도를 이용해 갈 수 있는 영종·용유도 주변 6개 해변(을왕리·왕산·마시란·용유·실미·하나개)과 4개 섬(무의·소무의·잠진·신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코레일공항철도는 고객 편의를 위해 용유 지역 내 숙박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청결·가격·접근성 등에서 양호한 숙박업소 44개소, 음식점 32개소를 추천업소로 선정했다.

코레일공항철도 관계자는 "MT나 가족여행 등을 준비할 때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숙박지 선택과 일정인 점을 고려했다"며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여행 출발 3일 전까지 코레일공항철도 홈페이지 내 관광안내(www.arex.or.kr) 코너에 신청하면 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코레일공항철도가 영종·용유도 지역의 여행자를 위해 여행 컨설팅 '알아서 척척 맞춤여행 서비스'를 오픈했다 /코레일공항철도 제공

식·음료업계, 막바지 총력전

구매 인증 이벤트… 여름 시즌 매출 올리기

식·음료업계가 막바지에 이른 여름 시즌 매출 확대를 위해 구매 인증 이벤트 등을 벌이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CJ 컨디션헛개수는 갈증해소라는 제품의 콘셉트에 맞춰 '드림카 1박2일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퀴즈 이벤트, 영상이벤트, 구매인증 이벤트 세 가지 이벤트에 따라 마세라티·재규어·벤츠·BMW·아우디 컴팩카 등 1박2일간 시승하고 싶은 드림카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컨디션헛개수를 구매한 영수증 인증사진을 올리면 된다. 이외에도 추첨을 통해 주유상품권, 영화예매권, 컨디션헛개수 기프티쇼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롯데칠성음료는 게토레이를 마시는 장면을 담은 인증샷을 이벤트 사이트에 응모하는 게토레이 인증샷 이벤트를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추첨을 통해 게토레이 모델 손흥민 선수 친필 사인볼, 스마트 워치, 스포츠 상품권 등 총 3580명에게 경품을 증정한다.

미스터피자는 오는 29일까지 '오늘의 피자 25%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피자 5종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매일 온라인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25%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다. 행사기간 동안 인증사진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에 한해 해당 요일 피자를 무료로 증정해 실제 주문 고객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김희정기자 ginnie@

가전업계, 가장 맛있는 온도 잡기 심혈

소비자의 까다로운 입맛 맞추기 기술 적용

음식에는 최적의 맛을 내는 온도가 있다. 최근 영양과 건강뿐만 아니라 맛까지 고려하는 까다로운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가전업계가 음식 특성에 맞는 온도를 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치를 가장 맛있게 보관할 수 있는 온도는 -1℃다. 삼성전자는 냉장고 우측 하단의 참맛냉동실에 김치 보관 최적 온도인 -1℃로 설정하는 '아삭플러스'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셰프컬렉션 냉장고를 이달 초 선보였다. 이 제품은 공간 제약 등의 이유로 별도의 김치냉장고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를 위해 소량의 김치도 맛있게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아삭플러스에는 갓 담은 김치를 맛있게 익히는 김치숙성 기능과 김치 종류별 염도별 최적 온도를 설정하는 강·중·약의 3단계 저장 프로그램 등이 적용됐다.

우리 전통 가마솥은 밥맛이 가장 좋은 온도 110℃를 만들어준다. 리홈쿠첸의 IH압력밥솥은 전통 가마솥 원리를 응용해 밥맛이 좋고 최적의 수분 조절을 통해 백미밥은 물론 현미와 잡곡밥까지 영양소 파괴 없이 완성될 수 있다. 2000℃ 용시기법으로 만들어진 무쇠 가마내솥을 적용해 열 전도율을 높여 밥알 하나하나가 고루 익는다. 또 쉽게 식지 않는 철 특유의 보온성으로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 밥맛을 오래 유지시켜준다.

와인도 온도에 따라 맛이 민감하게 변한다. 보통 화이트 와인은 10~15℃, 레드 와인은 15~20℃를 유지해야 하며 일정한 습도도 중요하다. 캐리어에어컨은 지난 6월 전자식 온도조절 기능이 탑재된 '2014년형 캐리어 미니 와인셀러'(사진)를 출시했다. 11~18℃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70% 정도의 일정한 습도를 유지시켜 와인을 최적의 조건으로 보관할 수 있다. 내부 환기시스템은 와인 주변의 냄새를 제거해 코르크 마개가 냄새를 흡수하는 것을 차단, 와인의 맛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것이 특징이다.

차를 맛있게 마시려면 60~70℃의 온도가 좋다. 더오디의 보온받침대 '핫딤'은 컵을 올려 놓으면 내용물이 식지 않도록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히터 받침대를 장착해 적당한 온도의 차 맛을 즐길 수 있다. 또 차를 마시기 전에 미리 컵을 데우기에도 적합하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2013년부터 해외에 설립·운영중인 'K 히트T 플라자'를 통해 해외 판로를 넓히며 차를 즐겨 마시는 독일 등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정혜선기자 hsunn@

'탄산수 열풍'… 가전에서 화장품까지

음료업계 올 매출 50% 증가 예상

탄산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음료 시장은 물론이고 최근엔 직접 탄산수를 만들 수 있는 탄산수 제조기와 정수기, 탄산수를 활용한 화장품까지 출시되면서 열풍에 가세하고 있다.

현재 탄산수 음료의 종류는 30여 종에 이른다. 음료 업계에선 올해 탄산수 시장 매출규모가 전년보다 약 50% 증가한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료업계, 신제품 출시 붐

국내 최초의 탄산수 제품은 일화가 2001년 선보인 초정탄산수다. 이 제품은 세계 3대 광천수로 유명한 초정리 광천수로 만들었다. 설탕과 색소, 인공첨가물이 전혀 가미되지 않았다. 최근 한층 세련된 느낌으로 리뉴얼된 패키지에 휴대가 간편한 초정탄산수 라임 미니 세트(350㎖)도 새롭게 출시됐다.

초정탄산수는 수입 제품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13년간 연속으로 탄산수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다논워터스 코리아는 프랑스 프리미엄 탄산수 '바두아(BADOIT)'를 지난 5월 국내에 선보였다. 또 이마트는 지난 6월 자체브랜드(PL) 탄산수 2종을 출시했으며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42만병이 판매되고 있다고 했다.

탄산수 수요가 늘자 하이트진로음료는 '디아망'을 유리병 대신 페트병으로 바꿔 새롭게 출시했다. 농심과 남양유업 등의 식품 대기업들도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역을 넘어선 탄산수 열풍

음료시장 못지 않게 생활가전업계도 탄산수 경쟁이 치열하다.

정수기업체 코웨이는 정수기에 탄산수 제조 기능을 결합한 일체형 제품 코웨이 스파클링 정수기를 지난 7월 출시했다. 개인의 취향과 입맛에 따라 탄산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왼쪽부터)일화 '초정탄산수 라임', 코웨이 스파클링 정수기, 네이처리퍼블릭 탄산수 오프닝토너&T존 팩 키트.

풀무원샘물도 지난달 31일 탄산수 제조와 냉온수기 기능을 합친 풀무원샘물 스파클링 냉온수기를 출시했다. 가습기로 친숙한 생활가전전문업체 위닉스도 최근 유리병 탄산수 제조기 소다스프레스를 출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탄산수를 활용한 화장품들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 리더스는 탄산 거품이 피부 속 노폐물 제거와 브라이트닝 마사지 효과를 선사하는 브라이트닝 탄산수 버블 클렌저를 출시했다.

최근 제라에서 출시한 이쿠아 쿨링 CC는 피부에 쿨링감을 제공해 산뜻한 여름철 베이스 메이크업을 도와주는 제품이다. 탄산수가 함유돼 피부에 상쾌함을 더해 준다. 네이처리퍼블릭도 탄산수를 이용한 탄산수 오프닝 토너와 대나무 숯 코&T존 팩으로 구성된 메이크업 키트 제품을 선보였다.

/정해일기자 ems@metroseoul.co.kr

강강술래, 선물세트 신선도 강화 총력

3중·MAP포장법 도입해 보냉효과 극대화

31년 만에 가장 이른 추석을 맞아 식품 선물세트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업체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의 경우 정육 선물세트의 포장 방법을 한층 강화하며 안심 배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강술래는 신선 배송을 위해 보냉가방으로 외부의 열을 이중으로 차단해 냉매제로 사용하는 아이스팩의 냉을 오래 유지시키는 3중 포장으로 배송시키고 우려를 줄이고 있다. 보냉가방은 열전도율이 낮아 보냉효과가 우수한 고급원단과 더 두툼한 단열재를 사용했다.

또 프리미엄세트에는 포장 속

공기를 모두 없애고 산소와 이산화탄소, 질소 등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다시 넣는 방식으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켜 진공포장보다 3일 가량 더 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MAP(가스치환) 포장 방식을 도입했다.

한편 강강술래는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 중이다. 이달 20일까지의 예약판매기간에 구매하면 10% 추가 할인혜택이 있다.

이달 20일까지 베스트셀링 메뉴인 한우불고기1호(1㎏)는 4만5000원, 한우불고기2호(1.5㎏)는 6만3600원에 판매한다.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대+한우불고기1㎏·11만7000원)와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등심 각0.7㎏·13만5000원)도 특가에 구매 가능하다.

인기메뉴인 강강양념1호(16대·8만1000원)와 강강실속2호(강강양념8대+한우불고기1㎏·8만1000원), 한우통갈비세트1호(3.2㎏·16만2000원)도 파격가에 선보인다. /김학선기자 hillune0404@

풀무원건생, 건강기능식품 9종

올해 추석이 평년보다 일찍 다가오면서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풀무원건강생활이 다양한 가격대별 건강기능식품 9종을 제안한다.

풀무원건강생활의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그린체'의 홍삼진효원골드(50㎖×10병)는 면역력증진, 혈액흐름, 기억력, 육체 피로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

갱년기 여성의 필수 건강기능식품 '로젠번수'(600㎎×336캡슐)는 혈행·뼈 건강·항산화까지 중년 여성을 위한 제품이다.

금사환(3.75g×30환)은 풀무원홍삼에 금시상황버섯·바다제비집·침향 등 고급 원료에 전통 원료까지 더해 기저를 높였다.

그린체 '오메가 3선물세트'(550㎎×120캡슐)는 복부비만 등으로 중성지방을 걱정하는 성인남녀의 혈중 중성지질을 개선하는 데 좋다. 그린체 '리얼비타민 MVP'(1.5g×90포)는 편식하기 쉬운 한국인의 식습관과 영양소 균형에 맞춰 지용성 비타민·수용성 비타민·미네랄을 한 포에 담았다.

성별과 체질에 따라 알맞게 선택한 건강음료도 추석선물로 주목 받고 있다. 풀무원녹즙의 흑마늘(80㎖×30포), 힘찬 홍삼(80㎖×30포), 흑즙과 헛개나무(120㎖×30포), 석류(120㎖×30포)가 인기다.

회사는 추석을 맞아 19일부터 9월 3일까지 건강음료 1세트 구입 때 하루건강권과 1세트(1개월)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벌인다. /정해일기자

롯데칠성, 실속 추석 선물세트

롯데칠성음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사랑의 마음을 풍성히 담아낼 수 있는 음료와 원두커피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준비했다.

온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델몬트 주스 추석 선물세트, '칸타타 원두커피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또 고급 추출방식인 핸드 드립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드립커피 세트 3종, 언제 어디서나 간편히 즐길 수 있는 티백 타입의 싱글백 세트 2종 등은 뜨거운 물만 있으면 정통 원두커피의 참 맛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 원두커피 만드는 과정이 번거로운 이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롯데리아, 양념감자·데리버거가 반값

롯데리아가 8월 Ria Day(리아데이) 1주년을 맞이해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양념감자와 데리버거를 절반가 수준으로 선보인다.

리아데이 첫날인 20일 정상가 1900원인 양념감자를 약 47% 할인된 1000원에 판매한다.

다음날인 21일엔 롯데리아의 대표 장수메뉴 데리버거(정상가 2300원)를 약 52% 할인한 1100원에 제공한다.

입소문 난 해외 브랜드 잇따라 상륙

플래그십스토어·단독매장·편집숍 등 경로 다양

가을·겨울 시즌 돌입과 함께 해외 브랜드의 국내 시장 진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명품부터 대중에 인기가 좋은 스트리트 브랜드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온라인 판매는 물론이고 백화점·편집숍·플래그십스토어 등 진출경로도 넓어졌다.

'프랑스 국민 가방'으로 알려진 액세서리 브랜드 '랑카스터(LANCASTER)'(사진)는 지난달 배우 이나영을 모델로 발탁하며 지난 5일 플래그십스토어 오픈과 함께 론칭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즌 메인 아이템인 '엑조틱 크로코(Exotic Croco)'가 공개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아이템인 '마드모아젤 라나(Mademoiselle Lana)' 컬렉션을 비롯해 특별히 한국 여성의 취향을 반영한 '메이드 인 프랑스(made in France)' 컬렉션도 선보였다.

특히 '만두백'으로 불리는 '이네스 베르니스(Ines Vernis)' 라인은 젊은 층에 특히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브랜드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에서 보기 힘든 라운드 형태의 가방과 세련된 색상, 가벼운 무게, 소재의 고급스러움 등에 스마트 쇼핑을 선호하는 한국의 25~35세 젊은 여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1985년 프랑스에서 탄생한 이 브랜드는 합리적인 가격대와 정체성이 분명한 제품들로 안정된 라인이 구성됐다는 평이다.

프랑스의 명품 슈즈 브랜드 '로베르 끌레제리(Robert Clergerie)'는 오는 22일 아시아 최초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단독 매장을 오픈한다.

이 브랜드는 미국·스위스·벨기에·영국·스페인·프랑스 지역에 25개의 단독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는 지난 2010년부터 신세계백화점의 구두 편집매장에서 소량으로 선보였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단독 매장을 선보인 것.

이와 함께 이번 시즌부터 남성 슈즈 라인이 처음으로 전개된다. 기존의 여성 컬렉션과 함께 커플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이목을 끌고 있다.

오픈을 앞둔 단독매장에서 1층부터 남성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으며 이달 말일까지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브랜드의 아카이브 컬렉션 전시도 진행될 예정이다.

두비스코리아(대표 장민석)는 가을·겨울 시즌을 맞아 일본 스니커즈 브랜드 루저스(Losers)와 덴마크 스니커즈 브랜드 백야드(BACKYARD)를 국내에 본격 론칭했다.

루저스는 나이키·뉴발란스 등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유명한 일본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인 'SNEAKERWOLF'의 손에서 탄생한 프리미엄 브랜드다.

토 캡(Toe Cap) 디자인과 얇은 아웃솔은 슬림한 형태의 기존 스니커즈와 확실히 구별되는 포인트가 된다. 특히 가죽은 사용할 편안한 인솔과 한국인 체형에 맞는 발형(Last Shape) 등이 특징이다.

백야드는 1972년 덴마크에서 시작한 브랜드로 유럽에서 카와사키(KAWASAKI)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는 상표권 문제로 정식 론칭되지 못하다가 이번 시즌 이름을 새로 지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됐다. 유럽에서는 카와사키, 아시아에서는 백야드의 이름으로 선보이질 예정이다.

두 브랜드 모두 이 회사와 현대백화점이 협업한 웨스클럽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이 주 판매 경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웨스클럽은 지난 5일 문을 연 현대백화점 신촌점을 포함해 6월말까지 무역점·울산점·중동점·목동점 등에 오픈을 앞두고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워터프루프 화장 제대로 안지우면 '독'

상당수의 여성들이 여름철 자외선 차단제와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꼼꼼한 클렌징을 위해 이중세안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팸리스코리아는 국내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4.7%가 '여름철 자외선 차단제나 차단 기능성 메이크업을 사용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55.7%가 '물이나 땀에 잘 지워지지 않는 워터프루프 기능의 화장품을 쓴다'고 응답했다.

워터프루프 메이크업 클렌징에 대해서는 '클렌징 후 메이크업 잔여물이 묻어 나온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66%)라는 답변과 함께 73.6%가 '이중세안을 한다'(73.6%)고 답해 대다수의 여성들이 여름철 클렌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외선 차단과 워터프루프 기능이 추가된 화장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땀·피지·노폐물 등이 모공에 축적되기 때문에 이를 말끔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여의도 오라클 피부과 정진영 원장은 "자외선 차단제와 워터프루프 화장품은 몸에 쉽게 씻겨 나가지 않도록 하는 성분이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모공을 막는다"며 "제대로 씻지 않을 경우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어 클렌징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원기자

이색 송편 선물세트 삼원식품이 운영하는 '빚은'이 한가위의 풍성함의 의미를 담은 '송편세트', '실속세트', '류커세트' 등 선물 제품 총 21종과 송편·지역 유과 등을 1만원~10만원 후반대의 가격으로 선보인다. 특히 '송편 선물세트'는 강원도 지역의 특산 먹거리 옥수수, 곰송편과 영광 지역 특산 떡인 모시잎 송편, 오색송편 등을 담아 추석 대표음식인 송편을 다채롭게 맛볼 수 있다. /삼립식품 제공

바르면 '물'로 변하는 에센스, 신기하네~

트랜스포밍 제형 화장품 눈길

최근 화장품업계들이 트랜스포밍 아이템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바르면 '물'로 변하는 에센스, 파우더처럼 보송보송한 비비크림 등 사용 시 눈에 보이는 모습과는 다른 제형으로 변해 소비자에게 뛰어난 기능과 신선함을 전한다.

한스킨 '바이오 프라좀 브라이트닝 크리미 세럼'은 크림 제형이지만 피부에 바르면 바로 가벼운 액체로 변하는 수분 브라이트닝 세럼이다. 트랜스포밍 제형으로 오일 함량을 최적화해 끈적임 없이 피부에 흡수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특상 기술로 적용된 광채 프라좀 시스템이 피부 속까지 관리한다.

더샘은 파우더를 바른 듯 마무리되는 윤안원 페이스 '에코 소울 파우더 비비 크림'을 출시했다. '크림투 파우더' 제형으로 비비크림의 밀착력과 커버력, 파우더의 보송함을 동시에 갖춘 제품이다. 여기에 SPF50+/PA+++의 자외선 차단 기능과 피부결 정돈의 프라이머까지 하나로 결합돼 도자기 피부로 가꿔준다.

루나의 '워터 에센스 팩트'는 물방울이 보이는 새로운 포뮬라가 특징이다. 제형의 60% 이상이 고농축 수분 에센스로 이뤄져 있어 화장 전 기초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촉촉함을 느낄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독특한 제형의 트랜스포밍 화장품은 실제로 기존 제품보다 피부 흡수·수분 보유 등 기능면에서 뛰어나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원기자 play@

이대목동병원, 27일 골다공증 건강강좌

이벤트도 함께 진행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가 27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골다공증을 주제로 한 '엄마와 딸이 함께 준비하는 뼈 건강 지키기'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좌에서는 정혜원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강의를 통해 골다공증 질환을 소개하며 김지영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운동처방사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운동에 대해 설명한다.

또 골다공증 검사와 체지방 검사가 무료로 이뤄지며 참석한 모녀 중에서 뼈 건강 검사 결과가 가장 좋은 모녀 한 커플을 선발하는 '동뼈 모녀 선발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관심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병원은 선착순 50명에게 비타민D 영양제도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02)2650-5311 /황재용기자

metrobook

새로 나온 책

경제 경영

퍼펙트 타이밍 스튜어트 앨버트/이위포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만 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언제 열심히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데 있다. 고난공 비즈니스와 인생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에 저자는 2000건의 타이밍 관련 에피소드와 도락을 분석해 비즈니스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퍼펙트 타이밍을 일러주고 있다.

벌 땐 벌고 쓸 땐 쓰는 여자를 위한 돈 버는 선택 이지영/초지

자신의 인생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싱글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 관리다. 하지만 숫자 놀음은 언제나 어렵다. 책은 이런 싱글 여성들을 위해 쓰고 벌고-갚는 악순환을 끊고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상식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소설

노스트라다무스의 왕호 톰 하퍼/한/행터

사라진 줄 알았던 중세 가톨릭 비밀결사 바카리우스 칼리 데이가 왕을 해독 젊은가인 보네니 … 금지하면서 그의 아내 안젤리카와 노르웨이 고고학자 비외른 볼토가 벌이는 모험을 그렸다. 다빈치가 노스트라다무스가 목숨을 걸고 수호하려 했던 비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이 디빈치 미켈란젤로 메디치가-미국 국방성 비티칸 등 과거와 현대 종교와 과학을 넘나들며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인문

한국을 지켜온 나무 이야기 원종태/앵복

35년간 산림조합에서 근무하며 나무에 대한 철학을 키워온 저자는 인간의 생존과 밀접한 나무에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스며있다고 설명한다. 정이품 소나무, 용문사 은행나무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들의 생태와 이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해 우리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다.

정치 사회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김승열/온라인리걸센터출판부

30년 이상 법률 전문가로 활동한 저자가 사회·경제현안을 해외 및 국내 사례와 비교하며 분석해 쓴 칼럼들을 엮은 책이다. 퍼시법 공정거래법 지식재산권법 방송통신법·소비자법 등 사회현상과 관련된 근거법령을 소개해 체계적으로 이해를 도모하면서 관련 법률 용어도 읽기 쉽게 풀어 썼다.

육아

산부인과 의사에게 속지 않는 25가지 방법 에밀리 오스터/부키

임신을 하면서 산부인과를 방문한 후 산모의 금지사항에 의문을 품은 경제학자가 70년간 발표된 의학 논문과 연구 결과를 경제학의 효용분석 논리에서 날카롭게 비교했다. 또 이런 비교를 통해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 예비 엄마들이 꼭 알아야 하는 상식을 소개하고 잘못 알려진 진실을 정리했다.

아베를 향한 안중근의 총구

반성 없는 일본에 직격탄

최근 한일관계를 비롯한 아시아 정세가 급격히 냉랭해지고 있다. 일본이 고노 담화를 다시 검증한다며 흔드는 등 '역사 부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패전 69주년 추도사에서 전임자들과 달리 '부전(不戰)의 맹세'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해와 반성', '차세대에 대한 전쟁의 교훈 교육' 등을 언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제 과거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평화와 상생은 낯선 이야기가 되버렸다.

이 소설은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인으로서 역사를 바로 알고 낯선 갈등의 매듭을 풀어 화합을 모색하길 바라는 저자의 마음을 안중근 의사의 입을 빌려 표현한 작품이다. 1부와 2부는 저자가 중국과 한국을 3년간 오가며 철저하게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역사소설이다. 안중근이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과 이후의 불법 재판에 대해 면밀하게 묘사했다. 이를 통해 당시 세계 정세를 향한 안중근의 시각을 되짚어볼 수 있다.

안중근 아베를 쏘다 김정현/열림원

3부는 가장 눈길이 집만한 책의 하이라이트다. 특히 1910년 순국한 안중근이 100여년이 흐른 후 아베를 저격한 죄로 재판장에 서서 아베의 죄목을 낱낱이 고하는 장면은 작가가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이 담겨있다. 저자는 안중근이 재판을 받을 당시의 신문 기록과 공판 기록을 참조해 생생하게 안중근을 부활시켰다. 안중근의 입을 통해 독도 문제, 역사 왜곡 문제, 위안부 사건에 대해 부인과 거짓으로 일관한 점, 태평양전쟁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점 등 15개의 항목을 들어 일본의 과거와 현재의 죄목을 조목조목 열거한다.

1910년 안중근이 일본 법정에서 이토와 일제의 반성을 촉구하고 동양의 평화를 외쳤던 메시지는 책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 반향을 일으킨다. 광복 69주년을 맞은 올해, 안중근 의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올바른 역사 의식과 책임감을 되새겨보자.

/정혜인기자 hjung1404@metroseoul.co.kr

몇 달 전, '점'으로 예술을 그린다는 설치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을 보러 간 적이 있다. 80세가 넘은 일본인 할머니라는 점과 예술계의 거장이라는 자신의 추천, 각종 홍보 프로 등 화려한 어휘에 호기심이 발동했다. 빨간 머리를 한 할머니라는 점도 그렇지만 작품은 더 충격이었다. … 내가 유식한 것일까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혈이 살다 (손정천/비채) 중-

/민혜 기자

교보문고, 물류센터 신축 통합 운영

"시간 당 처리 물량 두배" 도서 공급 효율↑

교보문고(대표 허정도)는 오프라인 영업점 물류를 담당하는 제1물류센터가 파주 부곡리에 신축돼 지난 18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제1물류센터와 제2물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도서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축된 물류센터는 대지면적 2만1649㎡(6549PY)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지난해 10월 착공해 약 7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쳤다. 지난 7월 25일 준공식을 가졌고 약 20일간의 시험 가동을 거쳐 18일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회사는 물류 통합 운영을 통해 복잡했던 물류흐름과 비효율적이던 인력운영 등을 해소하고 좌진 부지를 구입해 건축함으로써 임차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했다고 전했다. /김학철기자

유명인 체질로 나를 돌아보다

화제의 책

마음을 스캔하다 강용혁/경향신문

한방정신분석학은 정신과나 심리학의 인문 분석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다. 인간의 치우친 성정을 관찰하는 사상의학을 통해 인간 내면의 심리를 해설하는 것이다.

한방정신분석을 전공한 사상의학 전문가인 저자는 유명인 18명의 체질을 다루며 다소 생소한 한방정신분석학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인물을 비교하면서 말이다.

타고난 재주로 세상을 호령한 소음인 스티브 잡스와 소양인 싸이를 비교하며 사람의 체질은 얘기하고 있으며 공황장애의 아이콘인 소양인 이경규와 소음인 김장훈을 예로 들며 같은 병도 체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나이가 들어도 체질은 숨기거나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대 3인 3색 아버지상인 태음인 최불암, 소음인 이외수, 소양인 이순재를 통해 말하고 있다.

여기에 같은 체질이지만 다른 성격을 지닌 뛰고 싶지 않은 박지성과 품생품사 최민수, 독신보 유명한 소음인 잔중권과 태음인 김구라의 사연도 녹아 있다.

더욱이 저자는 유명인의 언행을 통해 체질을 분석하면서 그 이면의 심리까지 파악하고 있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상의학의 학문적 근거를 쉽고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람 고유의 체질이 어떻게 사람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몸의 질병으로 연결되는지를 한방정신과 환자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한방정신분석학으로 내 마음의 치우침까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유혜중기자

“이순신 영화 만든 것 가장 큰 행복”

'명량'으로 흥행 신기록 세운 김한민 감독

본능적 꿈틀거림으로 영화화
관객 소통으로 목표 달성
차기작 미정…'한산' '노량' 구상 중

"김한민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천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했던 촬영을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낸 것, 그리고 많은 관객이 영화를 봐준 것도 천행이고요."

1000만 관객은 영화계에서 꿈의 숫자였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개봉한 '명량'(감독 김한민)은 개봉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가뿐히 넘겼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흥행 열기다. 19일에는 누적 관객수 1500만1936명을 기록했다.

18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한민(44) 감독은 '명량'의 흥행 성적에 대해 "지금은 덤덤하다. 어떤 상황에 닥치면 그것을 무덤덤하게 보려고 하는 감독병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리더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전투 신과 어우러져 관객들과 소통한 결과인 것 같다"고 흥행 요인을 분석했다.

김한민 감독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게 된 건 운명과도 같았다. 전라좌수영이 있었던 전라도 순천이 고향인 그는 어릴 때부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영화 일을 시작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영화로 다루고 싶다는 '본능적인 꿈틀거림'을 가졌다.

고답적인 전기 스타일에서 벗어나 지금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로 이순신 장군을 그리고 싶었다. 이를 위해 김한민 감독이 주목한 것은 바로 '해전'이었다.

그 중 명량해전을 영화 소재로 삼은 것은 "본능적인 선택"이었다. "명량해전이야 말로 이순신 장군의 정신적인 엑기스를 잘 보여주는 전쟁이에요. 생사에 연연하지 않고 보여준 자기 헌신과 희생 같은 장군님의 정신이 전쟁을 통해 백성들에게 감화돼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전쟁이니까요."

그 말대로 영화 속 61분 분량의 해전 신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선에 맞서 싸워 기적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이순신 장군의 희생정신이 관객들에게 강한 카타르시스를 안겼다. 김한민 감독도 "이순신 장군을 관객과 소통시켰다는 점에서 영화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는 달성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영화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반응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 중 하나는 고증과 관련한 의문이다. 특히 전쟁의 지옥도를 보여주는 백병전 장면에 대해서는 실제 역사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한민 감독은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의 배는 아니지만 안위가 탄 배에서 백병전이 있었다고 나온다. 영화 속 장면은 이순신 장군의 헌신과 자기희생적인 면모가 민초들에게 감화된다는 영화의 테마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가져온 것이다. 주제적인 맥락에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증에 대한 이야기들도 결국에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 좋다"고 덧붙였다.

이순신 장군을 제외한 다른 등장인물의 이야기가 평면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냉사역으로 나오는 고경표는 대사 한마디 없이 등장해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한민 감독은 "이순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은 나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고 아쉬움을 인정했다. 다만 해외 관객들을 위해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도 더한 확장판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기대를 갖게 했다.

김한민 감독은 '명량'에 이어 한산도 전투와 노량해전을 다룬 또 다른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기획 중이다. 그러나 차기작이 바로 '한산'이 될지는 미지수다. 독립투사에 대한 이야기도 그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다. 김한민 감독은 "하고 싶은 작품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웃음을 보였다. 다만 한산도 전투와 노량해전에 대한 언급은 앞으로 이어질 '이순신 장군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한산해전은 임진왜란에서 첫 승전보를 올린 조선 수군의 자긍심을 보여주는 전투에요. 무엇보다 유명한 학익진과 그 화려찬란한 거북선이 등장하죠. 노량해전은 임진왜란 해전 사상 가장 격렬하게 싸운 전쟁이에요. 장군님이 전사한 전쟁인 만큼 영화화가 된다면 관객들도 펑펑 울지 않을까 싶어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한제훈(커넌트)기자 · 디자인/박은지

'25억 탈세' 송혜교 활동 영향은

"반성" 공식 입장 표명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일정 강행

배우 송혜교(사진)가 수십억 원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은 19일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하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됐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세무 대리인에게 일체의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 "2년 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추징세금과 가산세는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세무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송혜교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만여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넣어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혜교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8500만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1800만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5400만원 등 총 25억5700만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류 이미지 실추 우려

송혜교는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개봉 (내달 3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 영화 배급사인 CJ 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로선 영화 일정에 변동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송혜교의 탈세 논란은 한류 톱 여배우로서 이미지 실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드라마 '가을동화' '올인' '풀하우스'로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중국 영화 '일대종사' '태평륜' 등에도 출연하며 해외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탈세 논란이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인 강호동은 2011년 5월 종합소득세 탈세 의혹을 받고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국세청은 당시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판단해 7억원을 추징했다. 강호동은 조세범상 범법 행위가 아님에도 2년 6개월간 활동을 중단한 채 자숙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빅뱅 세계 최강 팬클럽 보유

빌보드 팬덤 투표서 우승… 데뷔 8주년 자축

그룹 빅뱅(사진)이 미국 빌보드에서 주관한 팬덤 투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미국 빌보드는 지난 18일 "팬덤 투표 '팬 아미 페이스-오프'의 최종 승부에서 빅뱅의 팬덤인 'VIP'가 91% 득표율을 기록하며 우승했다"고 밝혔다.

빅뱅의 팬덤인 'VIP'는 결승에서 올해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자레드 레토가 속한 서티세컨즈 투 마르스의 팬덤인 '디 에셜론'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팬덤 투표는 가장 강력한 팬클럽을 뽑고자 지난달 7일 총 32개 유명 팬덤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인터넷 투표를 통해 총 다섯 차례 승부를 거쳐 우승자를 선정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 세계에서 2000만회 이상 투표가 이뤄졌다.

'VIP'는 1라운드에서 팝스타 리아나의 팬덤 '리아나 네이비'를 이긴 것을 시작으로 셀레나 고메즈의 팬덤 '셀레네이터스', 소녀시대의 팬덤 '소원', 스칼렛의 팬덤인 '팬에드'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팬덤 투표 우승은 8월 19일 데뷔 8주년을 맞은 빅뱅을 위한 팬들의 선물이 돼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한편 빅뱅은 오는 11월 일본에서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5대 돔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은기자 yaw@

SBS 교양·예능 부분 개편

'달콤한 나의 도시' '즐거운가' 편성

SBS가 교양과 예능 프로그램을 부분 개편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엔 '달콤한 나의 도시', 일요일 오후 4시엔 '즐거운 가(家)'를 편성했다.

'달콤한 나의 도시'는 오는 27일 첫 방송된다. '도시의 변화'인 뉴욕 '후속' 격인 이 프로그램은 서른 살 즈음의 일반인 여성 4명이 출연해 일상을 가감 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남자친구가 없는 미모의 변호사부터 올 11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대기업 사원, 삼수는 재질이라 슬프지만 발랄한 영어 강사, 나이 서른에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 헤어 디자이너까지 이들 4명은 일과 사랑, 결혼·돈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달콤한 나의 도시'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연출한 PD와 작가가 만든다.

오는 31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엔 김병만이 출연하는 '즐거운 가!'가 방송된다. 지난 18일 KBS·MBC·SBS가 일요일 오후 예능프로그램을 오후 4시 5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한 가운데 SBS가 일요일 오후 예능에 초강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즐거운 가!'는 친환경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로 '인기가요' '일요일이 좋다' 사이에 편성됐다.

'즐거운 가!'는 마음 맞는 곳을 골라 출연진이 직접 집을 짓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농작물을 수확하고 가축을 기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김병만·송창의·장동민·이재훈·정겨운·민아(걸스데이)가 출연해 각자의 희망이 담긴 집과 공동체를 만들 예정이다. 특히 SBS는 이 프로젝트에 1억 원을 지원한다. 완성된 집은 방송 종료 후 지역 사회 공공 목적을 위해 활용된다.

/전효진기자

SBS '즐거운가' 이재훈·김병만·정겨운 (왼쪽부터) /SBS 제공

태민 솔로곡 인기 중국까지

'괴도' 뮤비 아이치이 주간차트 1위

샤이니 멤버 태민(사진)이 첫 솔로 앨범 '에이스(ACE)'의 타이틀곡 '괴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19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개된 '괴도' 뮤직비디오는 중국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이 뮤직비디오 주간차트(8월11일~8월17일) 한국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괴도' 뮤직비디오는 솔로로 변신한 태민의 새로운 모습과 함께 차별화된 퍼포먼스를 감각적인 영상에 담았다. '괴도'의 안무는 어반 힙합 안무가 이안 이스트우드의 작품으로, SM 퍼포먼스 디렉팅팀 비트버거도 참여해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태민은 이번 안무 작업을 위해 미국 LA 댄스 스튜디오를 직접 방문하는 등 안무 완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태민은 오는 20일 MBC 뮤직 '쇼! 챔피언'을 시작으로 주요 음악 프로그램에서 컴백 무대를 연다.

/정성은기자

될 것도 안 되는!
네 남자의
사나운 로맨스
tvN 금토드라마
아홉수 소년
9 19 29 39
매주 금,토 저녁 8시 40분 tvN 방송 / 8월 29일 첫방송
김영광 | 경수진 | 오정세 | 유다인 | 육성재 | 김희준

'댄싱9 시즌2' MVP "당분간 한국에서 활동할 것"

벨기에서 온 현대무용수 김설진, 블루아이 멤버와 함께 '비상'

김설진

엠넷 '댄싱9 시즌2'의 우승팀 블루아이 멤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경연 과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19일 상암동 CJ E&M 센터에서 열린 '댄싱9 시즌2' 우승팀 공동 인터뷰에는 블루아이 멤버 9명(윤전일·임샛별·박인수·이지은·김설진·최남미·김태현·안남근·김가수)과 안준영 PD가 참석했다.

이번 시즌의 MVP는 3차 예선(드래프트) 등장부터 숱한 화제를 뿌렸던 현대무용가 김설진이 차지했다.

김설진은 이날 "MVP 상금 1억원으로 작업실을 만들고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조금 드리고 싶다"며 "작업실은 제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작업 환경이 갖춰져야 좋은 작품을 만들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다. 그 소통으로 저와 작업하는 친구들이 먹고 살 길이 생기니까 제게 가장 필요한 건 작업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시즌 MVP를 차지했던 레드윙즈의 하휘동이 이번 시즌부터 마스터로 활약한 것에 대해 김설진은 "마스터가 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다"라며 "제작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벨기에의 피핑톰 무용단에서 활동했던 김설진은 '댄싱9 시즌2'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댄싱9' 이후 가장 큰 변화는 활동지역이 (벨기에에서) 한국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라며 "우선 한국에서 하고 싶었던 작업을 진행하고 내년엔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루아이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팀워크였다. 블루아이 우승으로 이끈 캡틴 윤전일(발레)은 "나 혼자 잘 하려고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9명의 꿈이 하나였다. 꿈이 같았기 때문에 화합이 잘 됐다"며 "레드윙즈로부터 좋은 자극도 많이 받았다. 레드윙즈의 캡틴 신규상 형과도 많은 이야기를 공유했다"며 승리의 영광을 라이벌 레드윙즈에게 돌렸다.

'댄싱9'은 대중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현대무용·발레 등을 좀 더 친숙한 스트리트 댄스와 결합해 춤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블루아이 멤버들은 모두 다양한 장르의 댄서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 것을 '댄싱9'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았다. MVP 김설진 역시 이 같은 이유로 '댄싱9'을 찾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태현(크럼프)은 "춤추기 전 스트레칭을 10~15분 정도만 하는 편인데 발레나 현대무용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굉장히 오래한다. 그런 부분을 많이 배웠다"며 "또 댄스스포츠에선 다양한 표정연기를 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지은(댄스스포츠)은 "고등학교 때부터 심사위원 앞에서 이기기 위한 춤만을 췄었는데 이번에 관객 앞에서 춤을 추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댄싱9'은 세 번째 시즌이 제작될 예정이며 이번 시즌의 우승팀 블루아이는 다음달 9일부터 14일까지 우승팀 특전 갈라쇼를 열고 관객들과 직접 만날 계획이다.

/김지은기자 fandkim@metroseoul.co.kr

엠넷 '댄싱9 시즌2' 우승을 차지한 블루아이 멤버들과 마스터단 /CJ E&M

시대에 저항하는 안방 청춘들

조선총잡이 왜곡 지적에도 영웅으로 · 끝없는 사랑 권력에 맞선 여장부

임오군란과 80년대 군사 정권을 겪고 있는 안방 청춘들이 눈에 띈다. KBS2 수목극 '조선총잡이' 이준기(오른쪽 사진)는 임오군란을 통해 민중의 영웅으로 성장하고 있다. SBS 주말극 '끝없는 사랑' 황정음은 군부에 대항한 결과 모든 걸 잃게 된 여성을 연기 중이다.

'조선총잡이' 박윤강(이준기)의 총구는 부패한 양반들을 향하고 있다. 착취당하는 노비와 백성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준다. 지난주 방송에선 임오군란이 그려졌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편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 힘썼다. 역사적 사건 속에서 민중의 영웅으로 성장하고 있는 박윤강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역사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사극이 왜곡 논란에 휩싸이는 이유다. '조선총잡이'의 경우에도 임오군란을 그리는 과정이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작품 속 군란을 일으킨 구식 군인들은 왕을 제거하려는 수구파의 계략에 놀아난 폭도로 묘사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임오군란이 외세의 수탈과 관료들의 부패 때문에 일어난 것과 다르다.

김정민 감독은 지난 6월 제작발표회에서 "조선 총잡이는 개화기를 그대로 반영하기 보단 그 시대를 영웅 판타지로 다룰 예정이다"고 말한 바 있다.

'끝없는 사랑' 서인애(황정음·왼쪽)는 군부의 권력에 의해 짓밟힌 삶이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 선 서인애는 고문을 겪어야 했고 언론 조작의 희생양이 돼야 했으며 심지어 성적 유린까지 당했다. 임신한 그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좌절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방송에선 서인애가 예전처럼 야생마 기질에 다분한 여장부로 부활할 것임을 암시했다. 서인애가 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부당하게 희생된 가족과 연인, 자신 그리고 시대에 어떻게 대항할 지를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방송작가 출신의 하필승 한성대 한국어문학부 교수는 "최근 우리 사회에 불신과 무기력이 만연해졌다"며 "이 현상을 변화시킬 리더의 모습을 드라마가 대신 보여주고 있다. 캐릭터를 통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황호진기자 [illegible]

명량 해무

'명량' '해무'가 담은 한국사회 무의식

영웅 바라는 대중의 욕망 상이한 방식으로 풀어내

올 여름 극장가는 국내 4대 메이저 배급사들의 대작 경쟁으로 유난히 관심이 뜨거웠다. '군도: 민란의 시대'(이하 '군도')를 시작으로 '명량',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하 '해적'), '해무' 등이 1주일 간격으로 개봉하면서 한국영화계는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 흥행 성적표만 놓고 보면 여름 극장가의 주인공은 단연 '명량'이다. 개봉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모은 '명량'은 '아바타'의 기록(1362만)을 깨고 역대 흥행 1위에 올랐고 1500만을 돌파했다.

한 편의 영화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대중의 욕망을 가장 잘 이해하는 영화가 흥행에서도 늘 우위를 점한다. '군도'가 생각만큼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민란의 시대'라는 부제에서 기대했던 혁명과 반동의 카타르시스를 영화가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명량'은 세월호 참사 이후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바라고 있는 대중들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다.

'명량'에서 이순신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장에 뛰어든다. 330척이라는 왜선의 압도적인 기세에 맞서 홀로 싸우는 이순신의 희생적인 모습은 많은 이들의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회오리바다에 휘말려 침몰하는 대장선을 끌어내는 민초들의 모습. 그리고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좇는 것이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는 이순신의 대사도 영웅과도 같은 지도자를 바라는 대중의 마음을 잘 보여준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해무' 역도 '명량'과 마찬가지로 침몰하는 배가 등장한다. 선장인 철주를 비롯한 선원들에게 '배'는 의 전진호는 삶의 터전과도 같다. 그러나 '명량'의 이순신이 희생적인 리더십과 민초들의 도움으로 침몰의 위기를 이겨낸 것과 달리 '해무' 속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은 침몰하는 배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무'는 사람들이 영웅을 바라는 바람은 현실 속에서 그저 욕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낱낱이 보여준다.

'명량'이 대중의 욕망을 스펙터클한 감동으로 풀어냈다면 '해무'는 대중의 욕망을 포장 없이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한국사회의 무의식을 극과 극의 방식으로 담아낸 영화들이다. 흥행 성적과 별개로 이토록 상이한 성격의 영화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올 여름 극장가는 무척 흥미롭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영화 '장수상회'의 주연 엑소 찬열, 박근형, 윤여정, 한지민(왼쪽부터)

'장수상회' 세대 초월 캐스팅

박근형·윤여정·조진웅·한지민·엑소 찬열 한 자리에

강제규 감독의 신작 '장수상회'(가제)가 세대를 초월한 캐스팅을 확정했다.

'장수상회'는 재개발을 앞둔 동네의 장수마트를 중심으로 고집 센 노인 성칠이 금님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따뜻한 가족애로 담아낸 작품이다.

이번 작품에서 주인공 성칠과 금님은 배우 박근형과 윤여정이 맡았다. 박근형은 성칠 역을 통해 독특한 캐릭터의 개성과 중후한 매력을 동시에 보여줄 예정이다. 윤여정은 소녀 같은 감성과 순수함을 금님 역으로 박근형과 탄탄한 연기호흡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진웅은 극중 장수마트의 사장 장수 역으로 소탈한 모습을 연기한다. 한지민은 금님의 딸 민정 역으로 함께 한다. 이밖에도 황우슬혜와 신예 배우 문가영, 아이돌 그룹 엑소 멤버 찬열도 출연한다.

'장수상회'는 그 동안 '은행나무 침대',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등 대작 영화들을 연출했던 강제규 감독의 첫 가족영화다. 강제규 감독은 "'장수상회'는 고단한 현실 상황에서도 작은 행복과 기쁨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희망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표현하고 싶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장수상회'는 현재 촬영 준비 중이며 8월 말 크랭크인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완전보험주식회사' 내달 초연

보험왕·고객의 흥미진진 '밀당' 그려

코미디 창작 뮤지컬 '완전보험주식회사'(사진)가 다음달 11일 초연을 앞두고 있다.

'완전보험주식회사'는 기상천외한 보험 아이템들을 팔아 최고의 보험왕이 되려는 설계사와 보험회사의 눈을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고객들의 흥미진진한 '밀당'을 그린 작품. 익숙한 일상에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담아 관객들의 웃음과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번 작품은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로는 유례없는 스타 캐스팅을 선보인다. 'SNL 코리아'에서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정상훈과 연극 '유도소년'으로 이름을 알린 박훈이 주인공 한보장 역을 맡았다.

영화, 드라마, 뮤지컬을 섭렵한 홍지민과 넌센세이션 '메노포즈' 등으로 잘 알려진 김한진은 멀티녀 역할로 열정의 연기를 펼친다. 이밖에도 임기홍, 박수희, 김효연, 정케현 등 연극과 뮤지컬에서 활약 중인 배우들이 함께 한다.

스태프 진도 화려하다. 뮤지컬 '토요일 밤의 열기', 브로드웨이 42번가'의 최재광 음악감독은 이번 작품으로 극작가 데뷔를 앞두고 있다. '플라후스', 뮤지박스'의 박성민 무대 디자이너, '레베카', '라카지'의 구윤영 조명 디자이너, '넥스트 투 노멀', '메노포즈'의 박은영 안무가도 참여해 완성도 높은 창작 뮤지컬을 선보인다.

뮤지컬 '완전보험주식회사'는 다음달 11일부터 11월2일까지 대학로 뮤지컬센터 공간 피꼴로에서 공연한다. /장병호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4					3		7
		3	5					
			3			2	8	
9	5		6	3				
7				1				6
				9	8		7	4
	1	6			3			
					2	1		
2		9					4	8

2	8				9	4		
3		7	1					
	9		7			2		
	3		5	1				
5			2		3			4
				7	4		6	
		2			7		1	
					1	8		7
		9	4				5	2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연사 스도쿠 프리미어」(제티 고든 프랭크 롱고 지음)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동거 중 시어머니와 갈등 심각한데… 남친을 중재자 아닌 내편 만들어야

Q Hey 캣우먼!

저는 현재 4년째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연애 때부터 시어머니 될 분의 질투를 한 몸에 받아왔어요. 시어머니는 홀로 세 남매를 키우셨고 유난히 막내인 제 남자친구에게 기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딱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기분만 지키며 서로 대우하려 했지만 보수적인 시어머니는 받아들이기 힘든지 제 남자친구를 괴롭히고 계세요. 사이에서 어쭙잖게 중재하던 남자친구 입에선 헤어지자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주변에선 시댁 문제는 심각하다고 마음 정리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남자친구와 '이만' 문제로 헤어져야 하나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령신부

A Hey 유령신부!

결혼을 소유의 관점으로 보는 어르신들은 며느리를 자기 봉 대신할 '일꾼'으로 생각합니다. 결혼 전부터 예비며느리로서 시달렸다면 결혼 후면 지금보다는 더 시달릴 건 뻔해 보입니다.

저는 고부갈등처럼 인생의 시간낭비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시비를 거는 사람과 맞짱을 뜨지 않으려면 한 귀로 흘려듣거나 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어르신들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으니 합리적인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한내심을 가지고 내 식대로 저항해서 상대가 익숙해지도록 체념시키는 수밖엔 없지요.

또 당신이 고부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첫째, 당신에겐 고부갈등 이상으로 신경을 집중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시댁 관련 일들은 며느리에게 핫라인으로 뻗치거나 남편이 일방하게 중재할 게 아니라, 남편이 그 핫라인의 담당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여 며느리가 얽혀있다면 남편은 아내를 지켜주는 입장이어야 합니다. 셋째, 잔인한 얘기지만 어르신들은 연세를 더 드시면서 며느리를 괴롭히거나 통제할 기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사실을 깊게 봐야 합니다. /캣우먼

김상회 재미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돈이 새나가는데 가게 내도 될까요 장업보다 상가 사서 임대하면 도움

Q 행운이 가득 여자 67년 8월 2일 음력 오후9시경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돈이 새나갑니다. 얼마 전 tv에서 신발장에 잔돈을 넣어두면 일도 잘 풀리고 돈이 안 샌다고 해서 해봤는데도 생각지 않은 곳에서 자꾸 나가는데 새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2~3년 후 작은 속옷가게를 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전문직도 아니고 언제 밀려나갈지 몰라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돈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는 간단한 수술도 여러 번 받고 사는 게 생일 탓에 부친다다. 달걀적 같은 세간짐을 해보라는 사람도 있는데 모어 놓은 게 별로 없어서 언제다 땅 놓고 여생을 보낼 수 있는지요. 희망의 말씀 기다릴게요.

A 언제리에 풍수라고 하여 신발장에 잔돈을 넣어 두면 일이 잘 풀리고 돈이 안 샌다 라는 말과 같이 생활 속에 비방(?)비슷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믿거나 말거나로 생각하세요. 일체유심조 一切唯心造라 했듯이 사람들은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 같은 사연을 놓고 생활행을 확연히 달리 하듯이 돈이 새나간다고 생각하면 돈이 나가게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돈이 새나간다면 외도하지 않았는데 분실을 하거나 도둑을 맞는 것이 새나가는 것이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돈 나가야 할 때 돈 나가는 것은 돈이 새는 게 아니라 쓰는 것이겠지요. 51세부터는 장사의 문서는 아니므로 소규모 상가를 사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노후가 풍족하게 되나 장사보다는 상가를 사서(되 아파트 내 상가는 어디에 말을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견(나와 동급의 오행)의 왕성한 겁합은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고 귀가 여린 게 탈이라 계약 시 나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일지 巳亥 태어난 생일 해 지살(地殺)로 역지살 활로 분주함을 나타내고 장생궁(長生宮)으로 학문을 즐기는 편이다 상식선에서 계약 시 유의할 사항 등을 미리 공부해 두신시오. 누가 뭐래 보라고해도 67년생은 창업을 하면 돈 잃고 건강을 잃게 되니 사업할 운이 아니지만 닭 김장이나 속옷 가게를 하고 싶다면 소상공인 지원 제도나 중소기업청에 소상공 자영업자를 위해서 장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으니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여 그곳에 연결이 되어 장사할 ITEM선정과 명의 평가를 받아 보는 것은 인생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은행거래를 확실히 하고 모아놓은 돈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풀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20일 (음 7월 25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 **48년생** 배우자와 뜻 깊은 시간 보낸다 **60년생** 이겨도 본전인 게임엔 다시지 말라 **72년생** 연약자 지는 동료가 밝다 **84년생** 혼란스러운 머리는 하나씩 정리 모드로~

소 — **49년생** 말썽 많은 모험엔 동참하라 **61년생** 참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73년생** 심술이 규해도 부정출발은 하지 말라 **85년생** 적당한 잔다구 필요한 날이니

호랑이 — **50년생** 삶에 활력소 될 일 생긴다 **62년생** 마음을 연 사람에게 과거 묻지 말라 **74년생**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목적 달성하나 **86년생** 매력적 이성이 나타나 가슴이 콩~

토끼 — **51년생** 고독 따라도 넉넉길도 가라 **63년생** 고민은 한꺼번에 해결된다 **75년생** 고집을 부려서 고립 자초하지 말라 **87년생** 부끄러운 기억 빨리 지우는 게 상책이다

용 — **52년생** 밖으로 나가면 힘이 솟는다 **64년생** 식식한 정보는 그냥 흘려라 **76년생** 변화 외면하면 두고두고 후회한다 **88년생** 상사의 깃단 칭찬에 힘이 솟구나

뱀 — **53년생** 자녀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게 부모~ **65년생**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야 한다 **77년생** 부모에 기대어 위기 넘길 생각 말라 **89년생** 원하던 답은 편는다

말 — **42년생** 원하는 것은 얻는다 **54년생** 변화보단 일관성을 유지할 것 **66년생** 남 모방하면 호랑이 그리나 개를 그린 격이나 **78년생** 당장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라

양 — **43년생** 말모할 때 써먹지 못한 카드는 버려라 **55년생** 이유 떠난 사람은 잊어주는 게 좋다 **67년생** 편내심에 보답하는 사은들은 늦게 온다 **79년생** 오진내 가능한 잡지 말라

원숭이 — **44년생** 자녀가 감동의 선물한다 **56년생** 홀쾌한 선장은 동업도 즐기는 꼴~ **68년생** 작은 것을 탐하면 큰 것을 잃는다 **80년생** 생각도 못한 경사로 즐거운 비명~

닭 — **45년생** 힘들어도 희망 버리지 말라 **57년생** 흥미를 끄는 영감이 생긴다 **69년생** 장인일은 앞장서서 해결할 것 **81년생** 명분이 없는 일에 집착하면 망예도 잃는다

개 — **46년생** 배후를 소리하는 배우자 없었다 **58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니 잡아라 **70년생** 현실성 없는 계획은 신기루일 뿐이다 **82년생** 직장인은 승복 같이 어깨 무겁구나

돼지 — **47년생** 마음 비우고 제자리를 찾아라 **59년생** 모처럼 자녀 덕에 웃을 일이 생기나 **71년생** 돌 건너 바람 쐬러 갈 일이 생길수도 **83년생** 열애 커플은 더 뜨거워진다

브라질 월드컵 상처 클럽서 달랬다

월드컵에서 상처를 입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클럽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스페인 간판 공격수 디에고 코스타가 첼시 유니폼을 입고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다. 올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첼시로 팀을 옮긴 코스타는 19일 영국 랭커셔주 번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번리와의 2014~2015시즌 1라운드에서 골을 터트렸다. 코스타는 0-1로 뒤진 전반 17분 동점골을 넣었고, 첼시는 이후 2골을 더해 3-1로 승리했다.

코스타는 지난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브라질에서 스페인으로 귀화해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했던 코스타는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안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러나 월드컵에서 돌아온 후 첼시로 소속팀을 옮기며 명예회복을 다짐했다. 첼시는 올 여름 이적료 3200만 파운드(약 544억5000만원)를 지불하고 코스타를 데리고 왔다.

루이스 수아레스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첫 경기를 치렀다(왼쪽). 첼시로 이적 후 첫 경기에 나선 디에고 코스타(오른쪽).

첼시 코스타·파브레가스 – 바르사 수아레스 이적 팀 데뷔전 활약

첼시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3위를 기록했지만, 1·2위인 맨체스터시티와 리버풀보다 30골 가량 적은 골을 넣었다. 첼시는 올 시즌 개막 전 공격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스페인 대표 선수로 월드컵 개막과 동시에 바르셀로나에서 첼시로 이적한 세스크 파브레가스도 개막전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전반 21분 문전으로 쇄도하는 안드레 쉬를레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줘 역전 골에 도움을 줬다. 전반 34분에는 파브레가스가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이바노비치가 머리로 받아 쐐기골을 넣었다.

이번 월드컵 최고의 문제아인 루이스 수아레스는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처음 그라운드를 밟았다. 수아레스는 1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누에서 열린 레온FC(멕시코)와의 친선 경기 후반 30분에 교체 선수로 출전했다.

공격 포인트 없이 10여 분만 뛰었지만 우려보다 빨리 경기장에 복귀했다는 점에서 수아레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그는 브라질 월드컵 이탈리아와의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어깨를 깨물어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A매치 9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0만 스위스프랑(약 1억1000만원), 축구 관련 활동 4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 징계가 과하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 14일 팀 훈련 합류와 친선 경기 출전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수아레스는 지난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에서 뛰다가 올 시즌을 앞두고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

브라질의 골잡이 네이마르는 부상 이후 이날 처음 경기에 출전했다. 브라질 월드컵 8강전 콜롬비아와의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무릎에 허리를 맞아 척추를 다친 네이마르는 이후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다 이날 그라운드에 나섰다.

선발로 출전한 네이마르는 전반 전만 뛰었지만 두 골을 터트렸다. 바르셀로나는 6-0으로 승리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박인비 LPGA 세계랭킹 1위 탈환 도전

캐나다 여자오픈서 리디아 고와 우승 경쟁

미국여자골프(LPGA) 투어의 메이저대회인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에서 2연패를 달성한 박인비(26·KB금융그룹·사진)가 세계랭킹 1위 탈환을 위해 캐나다로 향했다.

박인비는 22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 헌트 앤드 컨트리클럽에서 벌어지는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에 출전해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와 뜨거운 우승 경쟁을 펼친다.

박인비는 19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박인비의 랭킹 포인트는 11.17점으로 이제 1위인 스테이시 루이스(미국·11.74)와의 격차는 0.57점에 불과하다.

이번 대회 성적에 따라 세계랭킹 1위로 복귀할 수도 있다. 리디아 고에게도 기회는 열려있다. 리디아 고가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면 세계랭킹 1위로 뛰어오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3위에 머물러 메이저대회 우승과 세계랭킹 1위 도약을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그러나 세계랭킹 3위로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스와의 격차는 좁혀졌다. 지난 주 루이스와의 랭킹 포인트 격차는 1.59점이었지만 이제는 10.65점으로 루이스에 1.09차로 다가섰다. 여기에 박인비와는 불과 0.52차이다. 결국 이 대회 우승 트로피가 누구의 손에 들어지느냐에 따라 세계랭킹 1위 자리도 바뀔 수 있다.

캐나다 여자오픈에서 2012년 2위, 2013년 공동 13위의 성적을 거둔 박인비가 지난 2년간 캐나다 여자오픈에서 우승트로피를 차지한 리디아 고를 누르고 우승과 세계랭킹 1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회는 2012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밴쿠버 골프장(파72·6427야드), 지난해에는 에드먼턴의 로열 메이페어 골프장(파70·6403야드)에서 열렸으나 올해는 런던으로 장소를 옮겼다.

/채성운기자 [illegible]

롯데 심수창 3개월만에 1군 복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치열한 4위 경쟁을 위해 엔트리에 변화를 준다.

8월 불펜 난조로 힘겨운 경기를 하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는 우완 불펜 투수 심수창(33·사진)을 1군에 복귀시켰다. 지난 5월 9일 이후 102일만이다. 롯데는 19일 울산구장에서 열릴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전을 앞두고 심수창을 1군으로 불러 올렸다. 전날 신인 좌완 심규범(23)을 2군으로 내려 보내면서 1군에 자리가 생겼고, 이 자리를 심수창으로 채웠다.

넥센에서 뛰다 지난 2013년 11월 2차 드래프트를 통해 롯데로 이적한 심수창은 올 시즌 초반 1군에서 3경기에 등판해 8이닝을 던져 1세이브, 평균자책점 12.38을 기록했다. 2012년 선발과 불펜을 넘나들었지만, 2013년은 부상으로 1군에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올 시즌은 주로 롱릴리프 역할을 맡았다.

과연 심수창이 침체된 4위 수성전을 펼치고 있는 롯데 마운드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세영기자

프로야구 전적 [illegible]

■ 목동

LG	004	011	001	7
넥센	221	000	000	5

[illegible]

■ 문학

두산	010	015	023	12
SK	100	030	020	6

[illegible]

■ 울산

한화	241	001	002	10
롯데	000	310	300	7

[illegible]